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18  
09  
4 8 3

<http://azine.co.kr>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18 09

MONTHLY MAGAZINE 2018-09 483



4 8 3

발간등록번호  
38-1600006-000001-06





# COVER STORY

## 환경을 지키는 공군, 그린 에어포스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제트엔진이 불을 뿜으면, 단단한 금속제 항공기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장비와 유류가 필요합니다. 비행단에는 수많은 장병과 군가족이 살고, 기저 도로에는 수백대의 차량이 움직입니다. 영공 수호를 위해 움직이는 하나의 도시, 하나의 마을입니다. 당연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공군은 환경보호에 책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과 함께 푸른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공군의 과업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군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하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노력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내용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들. 주행 시 매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차'로 불린다. 공군은 앞으로 업무용 승용차의 50%를 친환경차로 대체할 계획이다.(관련기사 8-9쪽)

# LETTERS TO EDITOR

좋은 의견을 주신 독자 여러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김우진 경기도 고양시

월간 「공군」은 '서신'이다. 비둘기가 전해오는 서신처럼 반가운 소식들을 담아오기 때문이다. 항공기 정비병으로 복무하길 희망하는 입장에서 여름철 정비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기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 편집실

김우진 독자님, 그 어느 때보다 더웠던 여름, 건강하게 보내셨나요? 폭염으로 무더웠지만, 우리 공군의 모든 일원은 올해도 영공방위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답니다. 눈에 띄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공군,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 김예솔 서울시 성북구

월간 「공군」은 '꿈'이다. 읽으면서 공군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탐방기' 기사를 통해故 이상희 대위님의 헌신과 희생을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 편집실

김예솔 독자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오직 국민만을 생각한故 이상희 대위의 일화는,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잠시나마 그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묵념하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 이춘성 서울시 구로구

월간 「공군」은 '동료가 내민 얼음생수'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면서도 따스한 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친근한 이미지의 손범수 아나운서에게 숨겨져 있던 멋진 이야기를 읽고 대단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 편집실

이춘성 독자님, 방송에서는 친근하고 유쾌한 이미지지만, 편집실이 만난 손범수 아나운서는 진중하고 강직한 모습이었습니다. '동료가 내민 얼음생수'처럼, 시원하면서도 따스한 정을 느끼게 해주는 공군 예비역들. 멋진 개성을 가진 '조인, 조인!'의 주인공들을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주세요!



### 정혜영 울산시 중구

월간 「공군」은 '활력소'다. 다양한 기사와 정보를 접하면 힘이 나고 뿌듯한 기운이 들기 때문이다. 여태껏 잘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배우며 새삼 이순신 장군에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 편집실

정혜영 독자님,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백전백승의 전과뿐만 아니라 훌륭한 리더십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멋진 군인이었지만 또한 철학자의 면모를 지녔던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본받아, 우리 모두 정직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 바로잡습니다



위 사진에 대한 본지 2018년 8월호 26쪽 설명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위 사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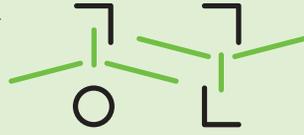
‘제2·3대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1954). 좌측부터 김정렬 장군, 해공 신익희 선생, 최용덕 장군’  
으로 설명하였으나, 사진 속 가운데 인물은 ‘해공 신익희 선생’이 아닌 ‘손원일 국방부장관(당시)’입니다.

따라서 위 사진에 대한 설명을

‘제2·3대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1954). 좌측부터 김정렬 장군, 손원일 국방부장관, 최용덕 장군’  
으로 바로잡습니다.

잘못된 내용으로 혼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



05	화풍지설	위(位)와 리(利)
06	기획특집 ①	그린 에어포스(Green Air force)
14	르포르타주	캐빈(Cabin)을 책임지는 사람들
18	나의 공군역사 탐방기	공군사관학교의 옛 터전, 보라매공원
22	조인, 조인!	불사조가 된 공군인, 박철순
26	기획특집 ②	대한민국 공군과 여군 조종사, '최초'의 역사
28	기획특집 ③	유치곤 장군 호국 백일장 대상 수상작
30	공군의 철학과 사상	공군의 신사도 - '금도'와 '지성'
32	지금 이 순간!	8월의 참모총장 동정 & 공군 소식
36	A-minor	황금시대

---

38	담벼락	길
40	책 읽는 공군	돈키호테 &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

42	첫 독자의 편집후기	치킨, 좋아하세요? 『치슐랭 가이드』
44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일본의 영혼, 무사도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46	Play the Fly	슈팅게임으로 돌아온 태평양 전쟁
48	Hollywood English	시카리오 : 암살자의 도시(Sicario)
50	트렌드가 보인다	총동구매를 부르는 백화점의 비밀들!
52	재즈가 들린다	재즈는 노력의 산물
54	생각하는 그림	달에 간 암스트롱과 '그 사람'
56	Fitness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표 지(앞)**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 에어포스  
**그 래 픽** 상병 홍인선  
**커 버 스토리** 15비 정훈공보실

**발 행 일 자** 2018년 9월 1일(통권 제483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왕근  
**편 집 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강성구  
**편 집 감 수** 소령 조요진  
**기 획 · 편 집** 대위 이요셉  
**디자인 · 인쇄** 국군인쇄창(F18080360) (910-4504, 042-553-4504)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위(位)와 리(利)

지난 8월 7일, 각 군은 사관학교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입시 경쟁률을 공개했습니다. 올해는 공사(41.3 대 1)와 육사(34.2 대 1)가 개교 이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공사 여생도의 경우는 20명 모집에 2,034명이 지원하여 101.7 대 1의 기록적인 경쟁률로 최초로 세 자릿수를 돌파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는 ‘사회의 취업난과 우리 군이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인식되어지는 트렌드가 반영된 것 같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되었건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국방 분야에 투신하겠다고 모여드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공군의 인력 획득은 사관학교뿐만이 아니라 군인을 직업으로 택하여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자원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여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군이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인력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출신의 인재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자신의 비전을 완성해 갈 수 있는 도전의 공간이 될 때 우리 공군은 보다 건강한 조직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일(직업)을 갖기 위해 애쓰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여러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저는 위(位, position)와 리(利, benefit)를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리(利)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지위(position)를 높여가고 이를 통해 보다 널리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benefit)을 말합니다. 아무리 깊은 학식과 덕을 갖추어 세상을 이글 큰 재주를 가졌다 해도 위(位)를 얻지 못하면 그 재주는 작은 영역에서만 쓰이는 작은 재주가 되어 버립니다.

공자가 천하를 주유하면서 얻으려 한 것도 위(位)였습니다. 그러나 공자도 위(位)를 얻지 못해 자신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사상가로만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정치가로서 천하를 이롭게 하는 큰 리(利)를 당대에 얻지는 못했다고 보아야겠지요. 군대는 위(位)(계급)가 주는 의미가 매우 큰 조직입니다. 위관보다는 영관이, 영관보다는 장군이 펼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업군인이 진급을 하겠다는 것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급을 꿈꿀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통섭(統攝)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는 이 시대에 공군이 대(大)병과제도를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분명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小)병과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한, 높은 경쟁을 뚫고 들어온 우수 인재들이 모집단이 작은 군소(群小)병과의 틀에 막혀서 폭넓게 평가받지 못한 채 군을 떠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8, 9월은 장교들의 진급 시기입니다. 선발된 인원보다 비선된 인원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중한 능력과 인품을 갖추고도 공군의 인력 운용과 편제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위(位)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까지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는 비단 군대만의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비선된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지금 눈앞에 주어진 일에 집중해 보기를 권합니다. 때로 시절(時節)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뜻을 품고 숨어서 그때를 기다리는(潛居抱道 以待基時, 잠거포도 이대기시)’ 은둔군자(隱遁君子)의 위(位)를 얻어 보는 것도 긴 인생에서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AF

정훈공보실장 대령

강성구

# 환경을 지키는 공군, 그린 에어포스! 환경 종합발전으로 미래를 생각하다

공군본부  
환경/국유재산과장  
전상학 중령

‘환경 보호’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어느 먼 곳에 있는 푸르른 숲과 맑은 강물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 그러나 미세먼지, 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등의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환경 보호는 더 이상 먼 숲 속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의 문제로 다가왔다. 갖가지 환경 이슈에 국가적 관심이 쏠리는 상황, 아름다운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으로서 좌시할 수 없다. 환경을 지키는 공군, 그린 에어포스가 출격할 시간이다.

공군본부 시설실에는 ‘환경/국유재산과’라는 부서가 있다. 이름부터 ‘환경’이 들어가는 이곳은 공군의 전투력 유지와 부대 운영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환경/국유재산과장 전상학 중령을 만났다.

AF 환경/국유재산과(이하 환경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상학 중령** 저희 과에서는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등 온 환경 영역에 대한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추진합니다. 관련 환경 법규에 따라 오·폐수처리장,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환경시설물의 설치·운영을 통제하고 각종 환경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장 및 공대지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모니터링하고, 민간과 부대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토지·건물 및 공작물<sup>1)</sup> 등 공군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도 저희 과의 임무입니다.

1) 공작물 : 땅 위나 땅 속에 인공적으로 제작한 물건

AF 최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과의 부담도 커질듯 합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상학 중령** 환경 보호는 오늘, 내일의 문

제가 아닙니다. 미세먼지, 플라스틱, 쓰레기 등과 같이 최근 이슈화된 환경 문제들도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소 소홀히 했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위해성이 알려지고, 법규나 상위 지침이 보완되면서 환경업무가 발전되어가는 것입니다. 공군은 이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93년부터 '공군 환경 종합발전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은 2017년에 작성된 것으로서 환경부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군 환경관리 지침서'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AF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종합발전'한다고 하니 더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전상학 중령** 그렇습니다. 인간의 활동은 필연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군의 모든 업무 영역은 곧 환경 관리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안 좋은 환경으로부터 공군인을 보호하는 것도 저희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환경 문제는 당장 눈 앞에 놓인 과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앞날을 내다보고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 종합발전계획의 목표는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유해 환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포함합니다.

AF 공군과 관련된 모든 환경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상학 중령** 물론입니다. 환경은 몇 사람의 노력이나 특정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



01, 02.

하천 정화 활동, 오염 토양 정화 등 공군의 환경보호 노력은 다각도로 이뤄진다.

든 분야와 장병들이 일관된 정책에 맞춰 합심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일례로 공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분야(관련 기사 8~9쪽)를 비롯하여 모든 분야가 과제를 수립·실천하고 있고, 시설분야(관련 기사 10~11쪽)는 수자원 및 전력 관리를 통해 이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친환경 공군 건설을 위해 한 발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AF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문제에 대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상학 중령** 미래에 나타날 환경 문제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부각되는 환경 이슈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살피고 제어하는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각종 센서와 사물인터넷, 자동제어 기술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극 적용하여 미세먼지, 실내공기질 등을 자동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된다면 새로운 환경 문제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AF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 장병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전상학 중령** 환경 보호는 좋은 정책이나 마음가짐보다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군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계획'에 따라 장병 한 명이 일회용품 사용을 1개씩만 줄여도, 공군 전체로 보면 6만 개의 일회용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쪼록 장병들이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AF

'미세먼지 종합 관리계획 성과분석 회의'에서는 시설, 수송부터 인사, 군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대책이 논의된다. 수립된 정책이 현장까지 한마음으로 이어질 때, 환경보호 노력은 빛을 발한다.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수송과  
진종광 중령

## 그린 에어포스, 미세먼지를 물리쳐라 군 차량 미세먼지 저감 정책

집을 나서기 전, 날씨 외에 확인하는 것이 있다. 바로 '미세먼지 수치'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 모습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좋은 환경과 맑은 공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렇다면 환경을 지키는 그린 에어포스는 미세먼지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공군 미세먼지 종합 관리계획' 중 '군 차량 분야'의 노력을 알아보기 위해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수송과를 방문했다.

AF 말고 계신 임무를 비롯하여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진종광 중령**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수송과 진종광 중령입니다. 시설실에서 주관하는 '미세먼지 종합 관리계획' 중 '군 차량 미세먼지 저감 정책 14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제 내용으로는 '그린 에어베이스 지정/운영', '친환경차 도입 확대 및 시설 확충', '군 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 등이 있습니다.

AF '그린 에어베이스'라는 단어가 우선 궁금합니다.

**진종광 중령** 공군 비행단은 많은 사람과 장비, 차량이 밀집된 곳입니다. 심지어 업무용 승용차는 3군 중 공군이 가장 많습니다. 미세먼지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군에서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비행단을 '그린 에어베이스'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그린 에어베이스로는 15비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AF** 15비가 그린 에어베이스로 지정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종광 중령** 현재 15비는 전기차 13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최신 전기차 3대, 내년에는 2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총 18대를 시범 운용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운용하고, 신형 전기차도 시범 운용한다는 점에서 그린 에어베이스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AF** 최신 전기차를 시범 운용하는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진종광 중령** 공군은 국방부 정책에 의거하여 앞으로 업무용 승용차의 50%를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용해온 전기차는 1회 충전 시 7~80km까지만 주행이 가능하며, 기지 밖에서 사용하기엔 제한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15비에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시범 운용하여 제한 여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AF** 전기차를 운용할 경우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진종광 중령** 우선 미세먼지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일반 차량은 지속적인 저속 주행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전기차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소음과 잔고장이 적은 것도 장점입니다. 더불어 공군은 타군에 비해 단일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이 평지이기 때문에 운용 여건 또한 좋습니다.

**AF** 전기차로 바꿀 수 없는 일반차량의 경우,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속주행 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종광 중령** 우선 노후 경유차를 적기에 불용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는 사용 연한이 오래될수록 미세먼지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래된 경유차는 무리하게 사용하지 말고 정해진 시기에 불용합니다. 저속주행으로 생기는 문제는 'Full Load 주행구간 운영'과 '미세먼지 배출원 세척' 등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할 경우 연료의 불완전연소로 오염물질이 쌓이고, 심지어 배기관을 막아 엔진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대별로 최소 60km에서 2,000rpm 주행으로 축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Full Load 주행구간을 운영하고, 차량 계획정비(월간, 반기, 연간) 시 미세먼지 배출원을 세척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AF** 한편, '미세먼지 저감장치 시범 운용'도 실시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진종광 중령** 맞습니다. 사실 군에서만 사용하는 표준차량의 경우 미세먼지 문제에 취약한 편입니다. 그러나 국방규격을 바꾸기에는 비용문제가 크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공군은 한국기계연구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7년 5월부터 플라즈마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시제기를 만들었고, 올해 2월부터 10전비 항공기견인차와 무장형병순찰차에 부착해 테스트 중입니다. 이 장치는 잦은 저속 주행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이며, 현재까지 매우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겨울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며, 시범 운용 결과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AF** 향후 전망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종광 중령** 한두 대의 전기차 도입이나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만을 놓고 보면 환경에 별 영향 없는 노력을 한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두 개에 집중해선 안 됩니다. 시범운용을 통해 얻는 결과들은 향후 공군의 환경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큰 변화를 위한 중요 단계를 밟아 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과 차량이 밀집되어 있는 비행단은 하나의 마을, 도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노력들이 작은 마을과 도시를 바꿀 수 있다면 이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군 전 비행단이 그린 에어베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F**



9월에 첫 그린 에어베이스로 지정되는 15비는 전국 부대에 산재되어 있던 전기차를 모아서 운용하고 있으며, 신형 전기차도 도입한다.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시범 부착한 K311 차량 점검 모습. 현재까지는 저감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겨울에도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 그린 에어포스, 스마트하게 환경을 지켜라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품 쓰지 않기, 분리수거 잘하기, 물 아끼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등. 그런데 이 중 몇 가지는 첨단기술을 통해 '스마트'하게 할 수 있으며, 공군은 이미 그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고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공군본부 시설실 시설운영과를 방문했다.

시설운영과에서는 답변을 위해 세 명의 담당자가 취재에 응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는 이성준 소령,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을 담당하는 김병조 소령, 이 사업들을 총괄하고 있는 김형렬 중령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공군본부  
시설실 시설운영과  
이성준 소령



공군본부  
시설실 시설운영과  
김형렬 중령



공군본부  
시설실 시설운영과  
김병조 소령

AF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들의 이름이 하나같이 멋있습니다. 각 사업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김형렬 중령** '신·재생 에너지 활용'이란 태양, 물, 지열 등을 이용하여 만드는 에너지로 기존 화력·원자력을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은 급수시설에 센서와 제어장치 등을 부착하여 수량·수질을 원격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AF 우선 '신·재생 에너지 활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공군은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어디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성준 소령** 현재 공군은 연면적 1,000m<sup>2</sup> 이상 신축, 증축, 개축 건축물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요 에너지원은 태양에너지와 지열에너지입니다. 이미 공군사관학교 생활관에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으며, 시공 중인 F-35 정비격납고 등에도 같은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로이 설계 중인 건물들에는 어떤 에너지원을 적용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지고 있으며, 19년 예산 편성에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AF** 태양에너지는 비교적 익숙하지만 지열 냉·난방은 비교적 생소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성준 소령** 옛 선조들이 장독대를 땅에 묻은 것은 지하의 온도가 지상보다 비교적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지상의 온도가 높거나 혹은 낮을 때, 지하와의 온도차를 냉·난방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CO<sub>2</sub> 발생이 적고 경제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냉·난방이 가능합니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 개략도. 실내의 열을 흡수하고 지중에 방출하여 냉방을 수행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AF** 이번에는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김병조 소령**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은 바로 물을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주요 급수 시설에 실시간 유량계, 수질 계측기, 자동 염소 소독 등의 설비를 부착하여 물 사용 정보를 24시간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분석된 정보는 배관 누수 신속 복구, 음용수

수질 관리, 시설 노후도 평가 등에 활용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건강한 물 공급을 실현시켜 줍니다. 공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전군 최초로 공군사관학교에 시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AF** 시범운영 성과는 어떻게습니까?

**김병조 소령**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작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32,470톤(17년 사용량의 15%)의 물이 절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8천만 원, 다시 12개월로 환산하면 연간 1.4억 원의 절감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기존에는 누수가 발생해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낭비되는 물이 많았으나,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매우 효율적인 물 관리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음용수 수질 역시 관리자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관리되어, 보다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향후 시스템 운영방식을 지속 보완·개선시키면서 이러한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AF**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습니까?

**김형렬 중령** 공군은 신·재생 에너지 사용 등을 비롯하여 환경보호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정부와 국방부의 방향에 선도적으로 발맞추고 있습니다. 관련부처의 노력과 법령 개정 등 대내·외 여건과 추진동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적용 규모와 범위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AF**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김형렬 중령** 에너지 절약의 핵심은 ‘써야할 곳에 쓰고 안 써야할 곳에는 안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도 장비 개개인이 이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뿐만 아니라 임무 현장에서도 개개인이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AF**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통제실의 모습. 급수시설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획특집 ①  
그린 에어포스  
(Green Air force)



글  
이혜원(공감기자)



답변  
차수철 광덕산환경교육센터장

## 그린 에어포스,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 개인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환경 보호

앞에서는 환경을 위한 공군의 다양한 노력을 알아보았다. 인터뷰를 진행한 담당자들은 마지막에 꼭 “장병들이 환경보호에 동참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들의 노력은 왜 중요하며,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AF :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는 무엇입니까?

차수철 센터장 :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합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바다동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소비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1위다.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한 해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98.2kg으로, 하루 5억 개의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된다는 미국(97.7kg)보다도 많다.

AF : 하지만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되니까, 분리배출만 잘 한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차수철 센터장 : 우리는 생각처럼 ‘재활용품을 재활용하기 쉽지 않은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재활용품 수거 대란에서 보듯이 재활용이 가능한 성분이라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재활용을 하더라도 분류, 세척, 건조 공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다시 에너지와 물 사용을 가중시키고 추가적인 비용을 만드는 거죠. 그나마 재활용의 어려움을 줄려면 제품의 규격을 투명하게 통일하고, 소비자는 사용 후 이물질들을 최대한 제거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모두 재활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카페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의 경우, 처리비용이나 규격 등의 문제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 분리배출을 잘 하더라도 소각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종이컵도 사정은 비슷하다. 종이 재질이기에 재활용률이 높을 것 같지만, 내부에는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있는데다가 묽은 배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10개 중 1개도 안 된다.



우리에게 친숙한 일회용 플라스틱컵.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이지만, 실제 재활용이 되긴 어렵다.

AF : 저도 이번에 텀블러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세척할 때 물과 세제를 쓰니까 일회용품보다 환경 보호 측면에서 낫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수철 센터장 : 일회용품 사용과 다회용품 세척 중 어떤 것이 '더 오염의 주범이 된다.'라고 순위를 정하긴 어렵습니다. 세제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있으니까요. 다만 천연세제 사용이나 세척 시 물 절약 등 개인의 노력으로 오염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반면, 일회용품은 제작, 유통, 폐기, 재활용 단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총량과 환경 부하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AF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까요?

차수철 센터장 : 물건을 구입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인지, 비슷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소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재활용 이전에 현명한 녹색 소비습관은 과잉생산시장을 조절하게 되고 자원낭비가 줄어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개의 종이봉투를 만드는 것보다 1개의 에코백을 만드는 비용이 더 크다. 1개의 종이컵보다 1개의 텀블러를 만드는 비용도 마찬가지로 더 크다. 때문에 환경보호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에코백과 텀블러를 제작하고 구매한다면 안 하니만 못한 일이 될 것이다. 결국 물건을 현명하게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 환경보호의 열쇠다.



제품 생산-폐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표기한 '탄소발자국' 라벨.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에는 '저탄소' 표시가 되어 있다.

AF : 공군 장비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차수철 센터장 : 우선 국방부나 각 군의 환경보전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재활용 가능여부와 탄소발자국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불필요한 전기나 물의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품을 멀리하는 등의 행동들은 무척 작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개인의 생활이 바뀌면 그가 속한 공동체의 환경 윤리까지 한 단계 높아지는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했던 일회용품 대란은 바로 나로 인해 계속되고 있었다. 내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면, 공동체가 바뀌고 환경도 지킬 수 있다. 그래도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공군이 준비한 아래의 표를 참고하자.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당신이 바로 '그린 에어포스'다. AF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지침 (환경부/공군)

사무실 개인/ 방문객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종이컵 사용 시 회수대를 통한 분리 배출
사무용품 구매 시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	개인 수건 및 손수건 사용 권장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또는 빈 박스 사용	이면지 적극 활용
각종 회의/행사 진행 시 다회용품 적극 사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자제



르포르타주  
캐빈(Cabin)을 책임지는 사람들



글  
대위 박지원



사진  
상사 편보현



취재지원  
중위(진) 이태연



## 이 공간의 마스터는 나야 르포르타주 - 캐빈(Cabin)을 책임지는 사람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는가?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승무원들이 산소마스크를 사용하는 방법과 구멍조끼를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승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공군에도 캐빈(Cabin, 기내)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다. 인원, 화물, 병력 등을 가리지 않고 캐빈에 들어온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들. 이번 호에서는 '로드 마스터(Load Master)'를 만나본다.

**01.** C-130 항공기에서 차량을 투하하는 모습. 고난도 임무지만 로드 마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02.** C-130 항공기에 화물을 적재하고 있는 모습. 로드 마스터는 화물이 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실리는지 확인한다.

**03.** 인원 공수를 위해 캐빈에 필요한 좌석과 안전띠를 설치하는 모습. 로드 마스터는 그날의 임무를 생각하며 캐빈을 디자인한다.



01

로드 마스터들의 하루 일과는 빠박하다. 그날의 스케줄에 따라 비행시간 150분 전에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일반 정비사라면 점검 후에 이상이 없으면 다시 복귀하지만, 자신이 비행해야 하는 임무라면 점검 후에 바로 임무를 수행한다. 임무를 마친 뒤에도 비행 후 점검을 하고, 다음 임무에 맞춰 항공기 내부를 준비해야 한다. 혹시라도 결함이 발견되면 정비 및 수리까지 해야 한다. 공수임무기의 특성상 이착륙이 잦은데 타기지에 착륙했다가 결함이 생기는 경우 즉시 해당기지로 출동해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과다.

로드 마스터의 임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원공수, 화물공수, 낙하임무(Paratroop), 화물 투하 임무가 그것이다. 비행 전 승객들의 상태 및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조종사와 긴밀하게 소통한다. 화물의 경우 포장상태와 적재 순서 등을 결정하고 무게중심의 분배를 적절하게 설계해 기류에 의해 기체가 흔들리거나 기울어도 화물의 무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이 항공기에서 강하할 때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화물을 투하할 때는 낙하산이 캐빈에서 빠져나가 완전하게 퍼지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최대 35,000파운드(약 16톤)의 화물이 투하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절차도 소홀히 할 수 없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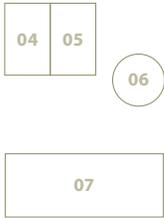
03



04. 05. 로드 마스터의 임무를 설명하고 있는 김도진 상사(좌)와 박샘 하사(우). 그들은 모두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기쁘다고 했다.

06. 김도진 상사의 플라잉 기어(Flying Gear), 비행임무에 필요한 물건들을 항상 휴대하고 있다.

07. 후배 로드 마스터들과 T.O.(Technical Order)를 숙달하며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김도진 상사(좌측 세 번째)



김도진 상사는 1,500여 시간의 비행경력을 가진 베테랑 로드 마스터이다.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겸손하게 말하는 그는 기관정비사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추천을 받아 로드 마스터가 되었다. 비행환경적응훈련을 무사히 통과했고 항공기 정비, 로드 마스터 이론 등 여러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각오를 묻는 질문에 씩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배가 되고 싶다.”며 “질문을 받았을 때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생각으로 지금도 열심히 T.O. (Technical Order)를 공부하고 있어요. 후배들이 저를 보고 열심히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준다면 그게 가장 기쁠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박샘 하사 역시 제15특수임무비행단 로드 마스터다. 이글거리는 눈빛과 다부진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남달랐다. 그는 공군의 정비사로 근무하는 것과 비행임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 넘쳤다. “최근에 유행하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도 주인공보다는 잠깐 등장하는 C-130 항공기가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드라마 주인공이 내가 정비하는 항공기를 타고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드 마스터라고 불리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항공기정비사다.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한 항공기 점검은 필수다. 비행 전·후로 실시하는 점검은 물론 이들의 몫이다. 뜨거운 여름철이면 활주로의 온도가 60~70도까지 오르내리지만, 햇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활주로에서 묵묵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의 마음속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하다.

로드 마스터. 이름만 들어도 어찌서인지 든든함이 느껴진다. 하지만 '마스터'라는 이름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항공기정비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비행임무가 있을 때는 항공기에 동승해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해낸다. 해외로 긴급구호물자를 보내거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나라를 도울 때도 이들이 나선다. 말 그대로 '로드 마스터'이자 캐빈의 살림꾼이다. "이 공간의 마스터는 나야."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들. 가슴에 붙은 이름 석 자와 오른팔에 새겨진 태극기가 자랑스럽다는 이들을 마음속으로 응원한다. **AF**

- 08. 항공기에 액체산소를 주입하고 있다. 폭폭 찌는 여름에도 액체산소를 주입할 때는 주변이 서늘해진다.
- 09. 정비사이기도 한 이들은 항공기의 이륙 전후에 기체의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급유를 실시한다.
- 10. 엔진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김도진 상사. 프로펠러 날개 하나가 사람 키만 하다.

08

09  
10





# 나의 공군역사 탐방기

## 공군사관학교의 옛 터전, 보라매공원

뜨거움이 여전한 가을의 초입. 공군 역사의 흔적을 찾아 서울 보라매공원을 방문했다. 공원의 이름인 '보라매'는 태어난 지 1년이 되지 않은 매를 뜻하는데, 어리고 활력이 넘쳐서 최고의 사냥매로 평가 받는다. 사냥매가 공원의 이름이 된 이유는 바로 이곳이 공군사관학교의 옛 터전이기 때문이다. 공원이 사관학교 부지를 이어 받으면서, 학교를 상징하는 '보라매'가 공원 이름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금의 '공군사관학교는 청주에 있다.'고 인식되지만, 공사의 서울 생활은 길고도 의미 깊었다. 공원을 함께 둘러보며 공사의 성장기를 살펴보자.





서울 캠퍼스 시절의 공군사관학교 모습. 앞에 보이는 한반도 모양 호수는 '육만호'로서, 15대 교장(소장 육만호)의 이름과 같다.



사관학교가 떠난 자리에는 보라매공원이 만들어져 시민들에게 녹지와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1949년 6월 10일, 공군사관학교(당시 육군 항공사관학교, 이하 학교)는 김포에서 97명의 제1기 생도들과 함께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이듬해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학교는 이곳 저곳을 옮겨 다녔고, 1951년 진해에 터전을 마련해 약 7년간 머물렀다.

전쟁이 끝나고 혼란한 사회가 안정되어 가며 학교는 정착할 곳을 모색했고 1958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동으로 이사했다. 학교의 '성장기'로 일컬어지는 서울캠퍼스의 시작이었다. 학교는 이곳에서 현대적 교육 환경을 구비하여 제10기부터 37기까지, 약 27년간 청운의 꿈을 품은 청년 2,800여 명을 정예 공군장교로 육성했다.

서울은 사관학교에게 도약의 발판이었다. 교육과정과 환경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우선 교육과정에서의 큰 변화로는 학칙·교훈 제정과 교과과정 개편이 있다. 1959년 12월 1일, 학교는 공군본부와 국방부의 승인을 거쳐 최초의 학칙을 확정했다. 1966년에는 학교의 창설 목적과

교육방향을 담아 「지(知)·덕(德)·용(勇)」으로 교훈을 제정하였고, 한글 전용화 정책에 따라 1970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로 변경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1977년에는 공사십훈과 명예제도에 의존하던 기존 체계를 극복하고 훈육의 목적과 방법 등을 과학화·표준화하기 위해 '생도 훈육업무 절차'를 발간했다.

교과과정의 경우, 재교기간 중에 실시하던 특기교육을 임관 후로 조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일반학 교육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미 공군 장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강사 초빙, 졸업생들의 민간대학 위탁교육을 통한 장기교수 양성 등의 노력을 통해 생도교육의 질을 높였다. 1967년에는 1년간 가장 우수한 생활을 한 편대에게 영예를 주는 '무용편대' 제도를 신설하였고, 이는 1978년부터 '지용중대'로 개칭되어 이어지고 있다.

시설 부분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초음속 항공기 시대의 교육을 대비한 초음속 풍동실험실, 생도생활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된 호수, 생도들의 역사·의식 형성에 기여한 기념관, 컴퓨터 사용 보편화에 대응

1986년과 2017년에 촬영된 보라매공원 항공사진. 사관학교 시절에 지어진 건물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념관, 나무반 중 일부, 생도회관, 교회 등이 현재까지 남아서 새로운 용도로 쓰이고 있다.

\* 사진 제공 : 서울특별시청 건축기획과





공군사관학교의 상징물인 성무탑. 아직도 보라매공원 정문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현재 청주에는 확대 건립된 성무탑(1986)이 있다.



사관학교 시절 학과장이 있던 곳에 만들어진 에어파크. 8대의 퇴역 항공기와 더불어 사관학교 기념 조형물이 있다.

히는 전자계산소 등이 이 시기에 건설되었다.

학교의 서울 생활은 1985년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서울의 인구밀집 현상으로 인해 학교는 1976년부터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도심화로 인한 보안, 시설, 경관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이전 후보지가 검토되었고, 최종적으로 청주에 새 등지를 튼 공군사관학교는 항공우주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육성기관으로서 더 높은 곳으로 날개를 펼쳤다.

### 추억의 공간, 그 앞에 서서

보라매공원의 정문에 위치한 성무탑을 지나 공원의 중앙로를 걷다보면 정문 인근에서 '에어파크'를 볼 수 있다. 이곳에는 F-58전투기, C-123K수송기, T-33A훈련기 등 8대(수송기1, 훈련기2, 헬기1, 통제기1, 전투기3)의 실제 항공기가 전시되

어 있다. 또한 에어파크의 중앙에는 '공군사관학교 대방동 캠퍼스의 옛터임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조형물에는 공군사관학교 대방동 캠퍼스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 현판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27년간 영광의 수호자들을 육성해왔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판 여러 개가 유선형으로 설치되어 있다.

한편, 공군사관학교 시절 지어진 기념관과 교회 건물 등은 현재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기념관은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모습으로 '보라매독서실'이 되어 시민들의 학습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건립 당시 최신 공법으로 건축된 '성무교회'는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는 '동작아트갤러리'로 쓰이고 있다. 또한 생도 1대대 내무반, 생도회관은 각각 보라매청소년수련관과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이어받았다.

보라매독서실은 시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동작아트갤러리가 된 서울 성무교회. 성무교회는 한-미 기독교인들이 헌금으로 건립되어, '한-미 양국 공군 친선의 상징'이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 제1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본선 개최 장소

공군사관학교 서울캠퍼스는 '제1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지금의 스페이스 챌린지)' 본선 개최장소이기도 하다. 스페이스 챌린지란 공군이 주관하는 모형항공기 대회로서 초, 중, 고등학생들이 모여 모형항공기 비행 기록을 겨루는 대회이다. 대회 창설 당시의 문서를 살펴보면 모형항공기 대회의 주 목적은 전 국민 과학화, 항공인구의 저변확대, 공군주도의 항공인구 양성, 장기적 관점의 홍보 등이었다. 어린 학생들은 모형항공기 대회를 통해 항공에 대한 꿈을 키워갈 수 있었다.

1979년 10월 7일에 치러진 제1회 본선 대회에는 각 지역별 예선을 거친 610명의 초, 중, 고, 일반인 선수들이 공군사관학교에 모여 4개 부문(글라이더, 고무동력기, 유선조종, 무선조종), 24개 종목의 경기를 치렀다. 경기 규칙은 세계 모형항

공기협회 규칙을 적용했고, 낙하 및 행글라이더 시범 경기도 있었다. 또한 각종 항공기와 장비를 전시하여 관람객들도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동호인과 항공 유관부서들은 대회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으며, 미 8군도 많은 협찬과 도움을 주었다.

현재까지도 스페이스 챌린지는 참가자들이 항공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도록 돕는 한편, 공군기지 견학과 에어쇼, 항공기 및 무장 전시, 기타 행사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는 축제의 장이 되고, 국민들의 공군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스페이스 챌린지는 하늘을 향한 꿈과 희망이라는 슬로건 아래 2018년 9월 1일,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제40회 본선을 개최한다. 스페이스 챌린지와 공군사관학교의 전통이 앞으로도 아름답게 이어지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날리며, 보라매공원 역사탐방의 마침표를 찍는다. **AF**



제1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개회식 모습



본선 참가자가 힘차게 모형항공기를 날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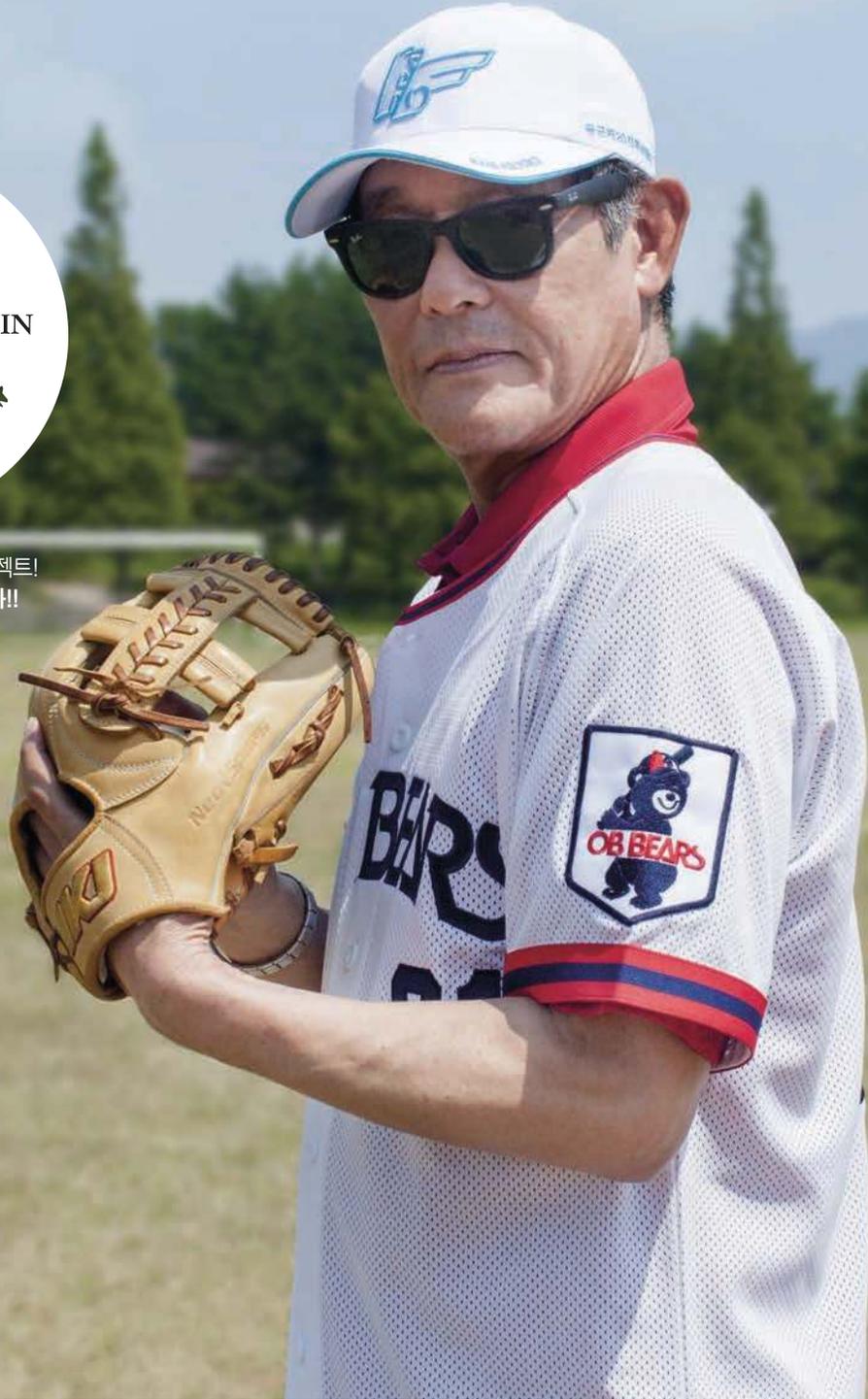
지금은 잔디밭과 트랙으로 재조성된 사관학교 연병장. 스페이스 챌린지와 사관학교의 발전을 기원하며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본격, 공군인 자긍심 충전 프로젝트!  
빛나는 공군 예비역 다 모여라!!

제28화



## 불사조가 된 공군인! 박철순 (병 256기)

대한민국 프로야구 원년, 1982년은 OB베어스의 한 해였다. 정규시즌을 1위로 마감했으며, 미국 마이너 리그에서 건너온 에이스 투수는 한 시즌 22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한국시리즈에 돌입할 때 에이스가 허리 부상을 당하며 팀은 위기에 봉착한다. 1무 2패를 당하고 벼랑 끝에 몰린 한국시리즈 4차전. 팀의 에이스는 감독의 반대를 꺾고 마운드에 등판한다.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 '불사조' 박철순의 이야기다.

박철순의 등판으로 한국시리즈의 흐름은 바뀐다. 진통제까지 맞고 호투하는 팀의 에이스를 보며 OB 선수들은 전의를 불태웠다. 결국 불리하던 전적을 뒤집고 OB는 프로야구 원년 우승을 차지한다. 그러나 박철순은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허리 부상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1982년 한국시리즈에서 투구하는 박철순 선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그는 부상으로 인해 다음 시즌을 뛰지 못했다. 겨우 재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타구에 맞고 쓰러지며 다시 부상을 당했다. 미국으로 건너가 두 번의 수술을 받은 후, 의사로부터 “다시 걷지 못할 것”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러나 그는 재활에 성공한다. 야구 팬들은 그를 ‘불사조’라고 불렀다.

“재활 훈련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딱딱 티가 나지 않아요. 조금씩 느리게 진행이 되는데, 아픈 것보다도 그게 힘들었어요. 야구는 고사하고 ‘정말 불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과 불안감이 공포로 다가왔어요. 그럴 때 군생활의 기억이 많은 힘이 됐죠.”

박철순 선수는 자신이 불사조처럼 재활에 성공한 비결로 ‘군생활’을 꼽았다. 그리고 절대 ‘립서비스’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물론 여러 가지로부터 도움을 받았죠. 종교, 가족, 팬들, 구단…… 그런데 제가 공군지 인터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도움이 됐던 건 군생활이에요. 제가 군생활 3년을 이겨냈다는 건 무지무지하게 큰 자긍심이에요. 이걸 멘트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방송국으로부터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식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고민 없이 ‘짬밥’이라고 답했다. 덕분에 촬영을 위해 비행단을 방문하게 되었고, 공군지 9월호 <조인, 조인!> 취재는 촬영과 함께 이

뤄졌다. 박철순 선수는 20전투비행단 병사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운동장에서 팬들과의 만남도 가졌다. 더운 날씨에도 힘든 내색 없이 시종일관 장병들에게 웃으며 농담을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팬들과의 만남을 마친 후 차량 안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AF\_**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식사를 ‘짬밥’으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군 복무 3년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할 만큼 제게 큰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단체 생활이 큰 영향을 줬어요. 팀워크와 책임감. 제가 입대 전에는 그런 게 굉장히 부족했던 거 같거든요. 공군에서의 생활이 그 부족함을 일깨워주고 일어서게 해줬죠.”



20비 야구동아리원들에게 투구 코칭을 해주는 박철순 선수.

야구실력 향상 비결을 묻자 “캐치볼부터 집중해야 돼요. 부상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라고 답했다.



그는 군생활 기간에도 야구를 계속했다. 공군의 야구팀 '성무 야구단'에서 투수로 활약한 것이다. 그의 호투에 힘입어 성무 야구단은 1978년 백호기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박 선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평소에는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생활했어요. 야구와 군 생활을 병행한 거죠. 시합 일정이 있으면 주로 야구를 하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훈련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사람들이 '공군은 편하다.'고 오해하는데, 저는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힘든 생활이었는데 그걸 하루하루 이겨내면서 자신감을 얻은 거죠."

**AF\_** "공군 복무 기간이 인생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하셨는데, 그럼 야구인생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저는 유니폼이 좋아서 야구를 했었어요. 만약에 유니폼이 아니었다면, 진작 야구를 관뒀을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어설픈 선수생활을 했었죠. 실력도 시원찮았고 시합도 변변하게 못 나갔고…… 그런데 제가 공군에 있을 때 외부 강팀에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입대했어요. 이종도, 남우식, 천보성. 이런 선배들을 만나서 야구 기술을 익히게 되죠. 그때 야구를 많이 배웠어요. 그 형들 만나고 우리 군대생활의 특징, 단체생활, 시간엄수, 책임감 그런 게 저한테 딱 맞아 떨어진 거 같아요."

**백호기 쟁탈 전국야구대회 우승 기념사진(1978)**

박철순 선수는 연세대팀(투수 최동원)과의 경기에서 5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성무 야구단의 대회 첫 우승을 이끌었다.  
(사진 제공 : KBO 소장(기증자 윤병선), 신현석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본부장)

**AF\_** "프로야구 첫 해에 한 시즌 22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깨지지 않은 기록인데요. 대기록을 보유하고 계신 투수이시면서도 '야구는 투수놀음'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야구에 수비, 타격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물론 투수가 큰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투수가 초반에 실점을 하면 야수(타자)들은 맥 빠지니까요. 하지만 야수들이 득점을 해주지 않으면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허사예요. 22연승은…… 사실 저는 몇 연승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아니라고 우겨대긴 하지만, 사실 그게 큰 압박이었어요. 신경 안 쓴다고 말은 했지만 제가 신은 아니니까. (한편으로는 기록이 깨졌을 때 후련하셨겠어요?) 시원섭섭. 딱 그 표현이 맞아요."





박철순 선수의 프로야구 시절은 우승으로 시작해서 13년 후, 다시 우승으로 마무리되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를 물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아무래도 '82년 첫 게임 아니겠어요. MBC와의 첫 게임. 누가 뭐래도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비록 마이너리그 생활이지만 미국에서 야구를 하다 왔으니 많은 팬들이 궁금해 했고 기대도 받고, 큰 중압감 속에 등판을 하게 되죠.”

**AF\_** “그런데 시즌 초반에는 성적이 안 나와서 고전하셨습니다. 당시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핑계인데, 일단 미국과 사용하는 공이 다르고, 마운드 높이가 다르고, 스트라이크존이 다르고…… 그런 게 혼돈이 좀 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던 기사가 ‘빈 깡통이 요란한 박철순’이었어요. 그 다음이 ‘OB 구단은 속았는가.’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죠. 세상에, 정말…… 사기꾼 소리를 들을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죠. 괜히 내가 미국서 야구하고 왔다고 자만하지 않았나. 각오를 새로 다지게 됐어요.”

**AF\_** “결국 그해에 우승을 하셨습니다. 감독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시리즈에 등판하셔서 분위기를 바꾸셨는데, 그때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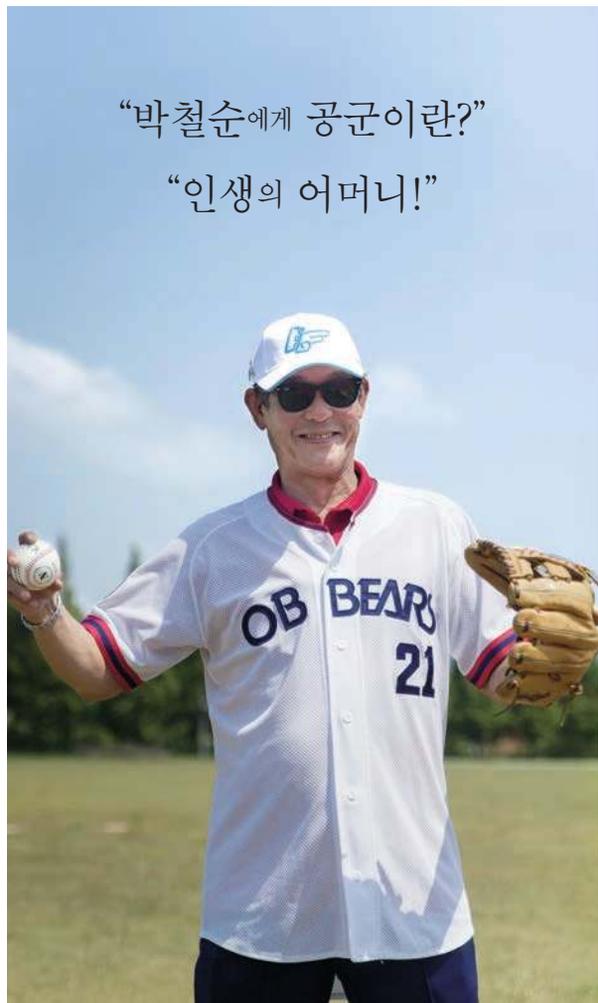
“감독님은 등판을 못 시킨다고 하셨는데, 제가 되레 화를 냈어요. 선수가 던지겠다는데 왜 그러시냐고. 우승

을 하고서는 물론 기뻐는데, 직감적으로 허리의 병이 깊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려가 현실이 됐죠. (그럼 13년 후의 우승이 더 감격적이셨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 더 우승하고 은퇴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뤘으니까요. (우승 후에 감격해서 우시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땐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AF\_** “그럼 군생활을 하실 때 가장 기뻐던 순간도 역시 백호기 대회 우승 순간이었습니까?”

“우승보다도, 제대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런데 ‘탈출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해냈다!’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야, 내가 이걸 해내다니!’ 더 힘든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시종일관 공군에 애정을 드러내는 박철순 선수는 비행단 방문 소감에 대해서도 ‘친정에 온 기분이다’, ‘감격적이다’, ‘놀랍다’, ‘멋지다’, ‘자녀가 입대를 앞두고 있다면 꼭 공군을 권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공군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고 물었다. 기대한 대로 애정 넘치는 답변이 돌아왔다. **AF**





# 여성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최초 모집! 대한민국 공군과 여군 조종사, '최초'의 역사



2002년,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여성 전투조종사가 탄생했다. 공사49기로 입교한 여생도들이 2001년 임관한 뒤 비행교육 과정을 거쳐 전투조종사로 거듭난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공군 여군 조종사 '최초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최초의 타이틀을 내건 공군의 새로운 정책을 소개한다.



2002년 9월 26일 당시 고등비행교육을 수료하며 촬영한 기념사진.  
왼쪽부터 편보라, 박지현, 장세진, 박지원, 한정원 중위(당시 계급).

최초의 여성 전투조종사 탄생 이후, 2007년에는 박지연 대위(당시 계급)가 전투기 4대로 구성된 1개 편대를 지휘하는 최초의 전투기 편대장(F-5)으로 임명된다. 같은 해에 하정미 대위(당시 계급)는 여성 최초로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을 조종하고, 2010년에는 장세진 대위(당시 계급)가 최초로 수송기 교관조종사 자격을 획득한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5년은 여군 조종사 역사 중 뜻깊은 해라고 할 수 있다. 최초로 '여성 비행대장'이 탄생했기 때문이다.<sup>1)</sup> 장세진 중령(진)(공사49)은 제5공중기동비행단에서, 한정원 중령(진)(공사49)은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각기 수송기 비행대장으로 임명되었다. 비행대장은 비행대대에서 대대장 다음의 직책으로, 대대의 모든 작전임무와 훈련을 감독하고 후배 조종사의 교육훈련을 계획하는 등 비행대대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즉, 비행대대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이후 2017년, 공군사(史) 최초로 여성 전투비행대장이 탄생했다. 앞서 언급한 첫 여성 전투기 편대장 출신의 박지연 중령(진)(공사49), 2016년 10월 보라매공중사격대회 중고도 사격부문에서 비행단 최우수편대의 영예를 거머쥔 박지원 중령(진)(공사49), 첫 여성 KF-16 조종사이자 2006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서 저고도 사격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첫 여군 비행대장인 장세진 소령.

2015년 5비 258대대 비행대장으로 보임된 장 소령이 CN-235 수송기를 배경으로 서 있다.

하정미 소령(공사50)이 그 주인공. 이처럼 여군 조종사들은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공 수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2018년, 우리 공군은 여성조종사의 인력확대를 위해 19학년도부터 최초로 '여성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대학교 재학 중 지원금을 받으며 정해진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고, 졸업 후에는 장교로 임관해 비행교육을 받을 수 있다. 비행교육을 모두 수료하면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로 거듭나는 것이다.

모집대상은 지정모집대학<sup>2)</sup>의 19학번과 공군 학군단(ROTC) 설치대학<sup>3)</sup>의 1학년이며, 학교별 2명 이내의 인원을 모집한다. 지정모집대학은 올해 9월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하고, 학군단 모집은 19년도에 실시된다. 구체적인 응시자격 및 신체검사 및 체력평가 기준은 공군본부 및 각 학교의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미래의 여군 조종사들은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자. 다가오는 2019년, 공군 여성 조종사 '최초의 역사'를 새로 쓸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다! AF

월간 「공군」 2017년 2월호에 실린 여성 전투비행대장 관련 기획기사



1) 같은 해 1월에는 여군 최초로 방공유도탄 포대, 그 중에서도 최신 전력인 패트리엇 포대를 지휘하는 여군 포대장이 탄생했다.  
 2) 세종대학교(항공시스템공학), 영남대학교(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3) 한국항공대학교(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 한서대학교(항공운항학과 항공융합학부(항공조종전공)), 국립한국교통대학교(항공운항학과)

영화 <빨간 마후라>의 실제 모델 유치곤 장군은 6·25전쟁 당시 최대출격(203회) 전투조종사로 혁혁한 공을 세운 전쟁영웅이다. 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유치곤 장군 호국정신 보존회'는 올해 처음으로 백일장을 개최했다. 대상과 금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공군참모총장상, 군수사령관상이 수여되었다. 일반부 대상 수상작 <추억>은 승호리 철교 폭파를 위해 출격한 유치곤 대위(당시 계급)가 어머니께 보내는 가상의 편지 내용을 담고 있다.

## <6·25전쟁영웅 유치곤 장군 호국정신 함양 백일장 대회> 대상 수상작

# 추억

글 최덕기(일반부 대상)

어머니!  
저 치곤입니다. 경황이 없지만 어머니 그리며 몇 자 올립니다.  
저는 지금 막 강릉비행장을 이륙하여 평양을 향해 날아가는 중입니다. 오른쪽을 내려다보니 저 멀리 동해바다 한가운데 울릉도와 독도가 거친 풍랑을 간신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의 검푸른 물결은 예나 지금이나 눈이 시리도록 푸르기만 합니다. 그러나 왼쪽으로 눈을 돌리니 전쟁의 화마가 활취고 간 조국의 강산이 너무 처참하여 가슴에서 울컥울컥 피눈물이 배어나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대동강 부근의 철교를 폭파하러 가는 중입니다. 적들과 물자가 이 다리를 건너와 우리 민족을 도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적들은 많이 둔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행에 명운을 걸었습니다. 오늘이 설령 제 생애 마지막이라 해도 어머니의 기도, 친구의 얼굴, 비슬산의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결코 서럽지 않습니다.  
어머니! 비행기가 워낙 넓어서 조종간 틈새로 찬바람이 뿜뿜 불어옵니다. 마치 조국의 현실과도 같은 냉랭한 바람입니다. 천우신조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적들이 북으로 물러나긴 하였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 크고 깊어서 언제 아물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 아래 전국 방방곡곡, 피난에서 돌아온 아낙네와 촌부들이 죽은 이들을 장사 지내거나 무너진 집들을 새로 일구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이리 서럽고 원통한지요. 우리가 어찌다가 이리 되었는지요. 그 지긋지긋한 일제의 손아귀를 벗어난 지 5년도 되지 않아 왜 이렇게 또 같은 나라 같은 사람끼리 죽이고 찢러야만 하는지 참으로 원통하고 애통합니다.  
어머니! 오늘이 1952년 1월 15일입니다. 우리 고향 비슬산에도 눈이 쌓였는지요. 음력설 앞이라서 그런지 매서운 눈보라가 설 새 없이 몰아칩니다. 멋진 비행사가 되어 보겠다고 어머니의 눈물을 뒤로 한 채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2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가 서로 깔깔거리며 재미있게 살아보자던 약속이 가물가물 하지만 합니다. 봄이 오면 찢레순 따 먹고 여름이면 비슬산 천왕봉에 올라 “나다, 유치곤” 하면서 호기를 부리던 그 시절이 저에게는 이제 희미한 모르스부호의 음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언젠가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나라가 함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날이 오겠지요. 그럼요. 와야 하고 말고요. 그런 날 오면 어머니 다시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툭툭 뭉쳐 세상 어디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튼튼한 나라 만들도록 해요.  
저 아래 희뿌연게 길게 누워 있는 게 아마도 대동강인가 봅니다.

음력설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강은 퐁퐁 얼어 있습니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말이 틀리지는 않겠지요. 이 전쟁이 끝나면 어머니 우리 식구들 비슬산에 올라 어머니 좋아하시는 나그네설움을 마음껏 한번 불러봅시다.

아! 저기 소련제 탱크를 잔뜩 실은 기차가 승호리 철교를 건너는군요.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저 철교를 폭파하는 겁니다. 저 다리를 통해 적들과 무기와 그릇된 사상과 이념이 함께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유엔군도 몇 달째 저 다리를 부수려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어림없습니다. 오늘 저는 저 다리를 부수지 않고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는 적군의 발자국이 우리의 땅, 평화의 들판을 넘지 못하도록 죽을 각오로 돌진할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기수를 낮출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높은 데서 폭탄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여러 번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성공하기 위해 오늘 공격에는 고도를 낮춰 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저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빨간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폭탄이 떨어집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폭력과 살육의 야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어서 조국에 평화가 오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뼈저린 성찰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 오늘은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못난 아들 치곤 올림 **AF**



\*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

6:25 당시 북한군의 군수 수송 요충지였던 승호리철교를 폭격으로 파괴한 작전. 유엔공군이 500회 이상 출격하고도 파괴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대한민국 공군은 과감한 초저공침투를 감행하여 철교 파괴에 성공하였다. 당시 유치곤 대위는 1편대 2번기로 출격하였다.

- ①
- ②

① 실제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 출격 모습.  
 ② 유치곤 대위(당시 계급)의 모습.



공군의  
철학과  
사상

# 공군의 신사도 - '금도'와 '지성'

1950년대, 대한민국 공군에는 「코메트」라는 기관지(誌)가 있었다. 「코메트」는 월간 「공군」의 전신으로서 초창기 공군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있다. 본 코너에서는 「코메트」에 담긴 공군의 철학과 사상을 살펴본다.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은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에서 10월 발간 예정인 『오래된 미래 : 공군정신의 원형 탐구』에서 만나볼 수 있다. \_편집부

휴전 직전인 1953년 7월 18일, 유엔공군과 한국 공군이 최대의 출격을 기록한 날, 고광수 대위는 전사했다. 공군 사관학교 제1기생 출신으로 '폭격의 명수'로 유명했던 그는 생전에 짧은 일기를 남겼다.



고광수 대위의 생전 모습.  
1952년 12월 14일부터 총 51회를 출격하였고  
1953년 7월 18일에 강릉 상공에서 피탄 당해  
전사하였다.

‘나에게 직접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치 마라. 말에 있어서 좀 낮게 부드럽게 하라. 자기 몸을 희생시킴으로써 남이 좋아하는 줄 알아라. 가능한 한 항상 미소를 띄우라.’ (1952년 2월 17일)

초창기 ‘공군’에 대한 별칭은 ‘신사군대’였다. 이 별칭은 자타가 공인하는 신생 공군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자 하는 의지와도 연관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공군인들 스스로 이와 같은 ‘신사군대’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초기 공군인들은 공군의 신사도 정신을 지향하는 의지와 함께 이에 부합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공군의 ‘신사도’는 영국 혹은 서방의

그것을 단지 모방하거나 겉모습만 흉내내려는 것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기록이 있다. 1954년 《코메트》 제 7호, 「자라나는 항공병학교」의 좌담회에서 한 간부가 공군장병들에게 “이지적이고 신사적인 기풍”을 심어주려고 노력한다는 글이 있다. 또 한국공군의 보급창은 언제나 과부족에 대한 청산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미군들이 “한국공군은 신사적이다”(「공군제40중앙보급창 방문기」, 예용해 기자, 《코메트》 제9호, 1954년)라고 추켜세웠다는 기록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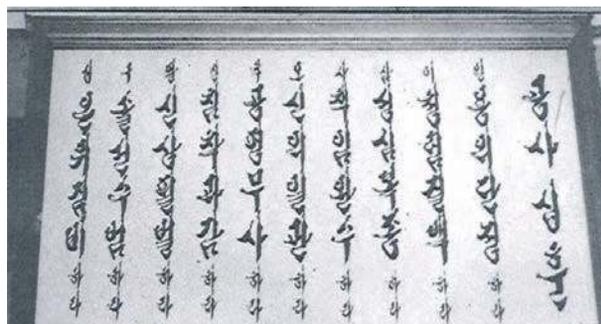
정훈감 이종승 대령은 《코메트》(제24호, 1956년)의 「권두언」에서 “우리 공군을 가리켜 신사군대라는 별칭이 붙은 지는 이미 오래 전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공군의 신사도’를 “대지 탈속의 인격화, 이것이 조인의 인격”이라고 하였다. 군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군인으로서 정체성의 정의와 방향을 어렵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이종승 정훈감이 「권두언-금도(襟度)와 무강(武强)」(1956)의 글에서 예의를 깎듯이 지키는 선비의 기절(氣節)과 전투의 혼란 속에 대열에서 이탈되어 며칠 동안 굶주리고 비참한 상황에서도 군인으로서 자세를 고수한 외국군인의 예를 들면서, “스스로를 비굴에 추락시키지 않고”,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금지를 잃지 않는 심사”를 금도라고 하면서 이 ‘금도’가 체면이 아니라 예절로서 진정한 ‘용기’의 발로라고 하였다.

이종승 정훈감은 「권두언-4월의 지성」(1956)에서는 “옳고 그른 것을 계절이 와야 할 때와 가야 할 때를 알듯이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힘” 즉 “건전한 상식과 진선미를 이는 도덕을 토대로 삼고 그 위에서 발로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명석한 판단력”을 지성이라고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공군인이 진정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뽑았다.

“군인이라고 덮어놓고 칼을 빼들고 총을 쏘고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니다. 왜? 칼을 빼들어야 하느냐? 옳은 일을 위해서? 왜? 총을 빼들어야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인간생활의, 사회생활의-인류 전체의 향상이나 진화를 위해서 빼들어야 할 칼이나? 혹은 빼들어서는 안 되는 칼이나? 하는 것을 정말 올바르게 가장 민첩하고 명석하게 가려 낼 수 있는 냉정한 판단력. 이 가장 평범하면서도 어려운 힘 이것을 나는 지성이라고 말하고 싶다.”(1956) 정훈감 서임수 대령은 “무위한 현실 부정의 도피와 천박한 현실 긍정의 타락이 같이 지양되어야”(1954) 한다고 강조했다.

부분적이고 짧게나마 초창기 공군의 ‘신사도’와 관련한 글들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공군인들은 어떠한 덕목을 공유하며, 또한 어떠한 가치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을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선배들이 쌓아올린 정신적 전통과 가치 위에서 인식해야 된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



1951년 5월 1일에 촬영된 공사십훈. 사관학교가 진해기지로 이동한 직후 만들어졌다. '용의단정', '신의일관', '침착과감', '술선수범' 등 신생 공군이 지향했던 신사적 기풍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

다. 공군 선배들의 그 지향점은 사회, 민족, 인류의 행복이라고 하였다.

“청춘의 이상형은 인류사회의 이상형과 일치될 수 있다. 그것은 흔히들 쓰는 말로서 참다운 청춘의 자유가 없는 곳에 참으로 건설적이요, 발전적인 사회란 있을 수 없다는 일반적 상식과 맞잡아 가는 것이다. 청춘이 불행한 사회는 모든 인간이 불행하다. (1952년 3월 15일), 어제부터 비행단으로 전속된 후부터는 바쁘고 긴장된 하루를 보낸다. 사람이라는 것이 사랑을 받음으로써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아낌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역시 행복일 것이다. (동년 6월 2일, 고광수 대위 일기초)” AF



여의도 전진기지에서 촬영된 당시 공군 조종사들의 모습(1951)



## 5비·15비 해외 긴급구호 공수지원

제5공중기동비행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7월 26일(목)부터 31일(화)까지 해외 긴급구호 공수지원을 실시하여, 홍수 피해를 입은 라오스 현지로 의료팀과 구호물품, 의료장비를 안전하게 수송했습니다.







### '18년 공군 지휘관회의 주관

참모총장은 8월 3일(금) 공군본부에서 각급부대 지휘관 및 본부 주요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18년 공군 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공군 지휘관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 국방개혁 2.0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 지휘비행 및 사천기지 현장지도

참모총장은 8월 9일(목) 제3훈련비행단을 방문하여 KT-1으로 지휘비행을 실시하고 부대 임무수행태세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제34방공관제대대, 제52시험평가전대를 방문하여 폭염 속에서도 임무수행에 매진하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작사,**  
**'18 한미 항공 지휘관 회의(ABC) 개최**

작전사령부는 8월 8일(수) 한반도 역내 연합항공 작전의 환경을 점검하고 작전 수행능력 발전 논의를 위해 2018 한미 항공 지휘관 회의(Air Boss Conference)를 개최했습니다.



**교육사,**  
**2018 공군 하늘사랑 병영캠프**

교육사령부는 8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2회에 걸쳐 경남지역 중·고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늘사랑 병영캠프를 운영했습니다.



**1전비,**  
**18-2차 고등비행교육과정 수료식**

제1전투비행단은 8월 2일(목) 18-2차 고등비행 교육과정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빨간 마후라를 수여받은 75명의 수료자들은 공군 조종사로서 임무수행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8전비·10전비,**  
**지역 주요 도로 살수 지원**

제8·10전투비행단은 폭염 장기화로 힘겨워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역 주요 도로에 살수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11전비,**  
**비행단 창설 60주년 기념식**

제11전투비행단은 8월 1일(수) 비행단 창설 제6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여, 비행단의 역사적 의의를 상기하고 부대원의 단결을 도모했습니다.



**20전비,**  
**120비행대대 8만 시간 무사고 비행**

제20전투비행단 120전투비행대대는 8월 13일(월) 21시 20분경, 8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했습니다. 120대대의 기록은 1997년 9월 1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AF**



# A-minor

## 황금시대

저마다 푸른 제복을 입은 동기도 과정도 다르지만, 우리는 공군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젊음을 뜨겁게 태워가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A-minor는 에어포스 마이너리티(Airforce Minority)의 준말입니다. 영공방위의 주역으로서 중책을 무게를 견디면서 자의 반타의 반으로 지나쳐왔던 개개인들의 소소한 단상(斷想)들을 옮겨보고자 합니다. 근엄과 카리스마 그리고 계급장의 뒤편에 가려있던 따뜻하고 기발하며 낭만적인 공군 아재(?)들의 모습들을 본 코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P.S. 영화를 볼 여유가 없다면 파리의 풍경을 아름답게 적셔주는 Sidney Bechet의 <Si tu vois ma mère>를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얼마 전 아내와 함께 'Midnight in Paris'라는 영화를 보았다. 아직 자유롭게 아이들을 떼어놓고 극장에 갈 수 없는 우리 집은 주말 저녁 아이들을 재워놓고 VOD로 종종 영화감상을 하는데, 마음만이라도 파리행 비행기를 타고 폰 아내의 희망사항을 다분히 반영해 한잔의 와인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골랐다. 2011년 작품이지만 크게 흥행한 영화가 아니었기에 개봉작을 보는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감상할 수 있었다.



영화 각본가이자 소설가인 미국인 길 펜더(오언 윌슨 분)는 1920년대 낭만과 예술혼이 살아 숨 쉬는 파리를 '황금시대'라 흠모하며 파리에서 살면서 소설 집필하기를 소망하나, 이를 두고 약혼자(레이첼 맥아담스 분)와 끊임없이 충돌한다. 파리의 어두운 길거리를 배회하다 자정을 맞이하던 순간, 길은 1920년대 파리 속으로 들어서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그는 그곳에서 헤밍웨이를 비롯해 그의 우상이었던 수많은 전설적인 예술가들을 만나며 교감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예술적 감성을 이해하는 여성 아드리아나(마리옹 코티야르 분)와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서로 교감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길과 아드리아나였지만, 곧 그들 사이엔 큰 벽이 하나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아드리아나는 그녀가 '아름다운 시대'라 부르는 1890년대를 동경하며 그 시절에서 살기를 소망한다. 그녀의 모습에서 황금시대를 그리워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길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기 머물면 여기가 현재가 돼요. 그럼 또 다른 시대를 동경하겠죠. 생각 속의 황금시대. 현재란 늘 그런거예요. 늘 불만스럽죠. 삶이 원래 그러니까..." 영화의 클라이맥스에 가까워졌기에 결론은 직접 확인하시길 바란다. 인류 역사상 동 서양을 막론하고 황금만큼 귀한 가치를 둔 금속이 없었다. 고로 황금에 빗대어 이름을 붙였다면 그가치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법하다. 자신만의 황금시대를 곱씹는 것,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묻고 싶다. 당신에게 '황금시대'는 오직 한 번밖에 허락되지 않는 것이냐고... 황금시대를 가장 빛났던 한 번으로만 규정하지 않겠다면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기 보다는 지극히 현재에 충실하자. 그렇게 지금 이 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더 많은 순간을 황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이라 나는 믿고 싶다. AF

※ A-minor는 '차마 내 이름과 얼굴을 걸기엔 멋쩍어서' 기고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익명의 코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감과 인생의 애환, 복잡미묘한 감정 등을 글로 풀어쓰신 분들은 언제나 월간 「공군」에 기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인트라넷으로 전송/마감 : 매달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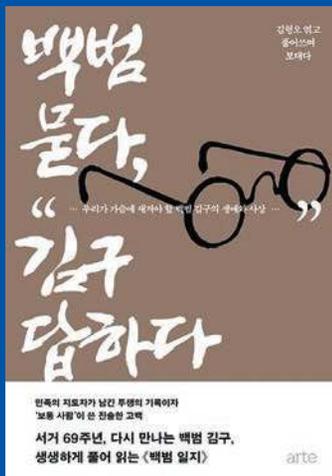


# 1·1·1 독서

1·1·1 독서운동은 1인 1개월 1권 이상 독서하기를 목표로 공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 월간 「공군」이 추천합니다!

### 지휘관 추천도서



[수필] 묻고, 답하고, 덧붙여 읽는 새로운 김구와 『백범일지』

“김구 선생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백범일지는 김구 개인이 걸어온 길을 정리한 자서전이자, 사랑하는 가족에 유서를 대신해 남긴 회고록, 조국을 위해 희생한 동료들 기리며 피로 쓴 역사서이며 나라와 겨레에 바치는 영원한 ‘국민 애독서’이다.

역은이는 지난 3년간 효창원 백범 묘소와 백범 좌상을 거의 매일 같이 마주하며 김구의 삶과 사상, 시대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오래 고심하고 공을 들였다고 고백한다. 그 결과 전문 연구자가 아닌,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 김구의 생애와 생각을 진솔하고 정직하게 바라보고 쉽고 간결한 문체로 담아냈다. 여전히 어려운 시대인 지금, 백범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백범일지》에 담긴 김구의 울골은 정신과 신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용기와 지혜의 말을 다시 읽는다.

김형오 | arte | 2018. 6. | 412쪽 | 19,800원

### 일반장병 추천도서



[과학] 지식이 지혜로 바뀌는 열두 번의 놀라운 경험

이 책은 지난 10년 간 저자의 강연 중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던 12개의 강연을 선별하여 다시 집필하고 묶은 것이다.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과 이 땅의 리더들에게 주는 뇌과학의 지혜와 통찰이 가득하다.

정재승의 강연은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생각의 숲으로 이끄는 발자국이다. 그의 발자국을 따라 들어간 숲에서 청중들은 ‘과학 지식이 삶과 세상에 대한 통찰과 지혜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 세대와 성별을 넘어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까닭이다. 통념을 뒤집고 뒤통수를 후려치는 생각의 전복, 관계없어 보이던 사실과 지식이 연결되는 놀라운 생각의 모험, 차갑게 보이는 과학과 지성의 성찰이 어느새 가슴 뛰는 삶의 통찰로 바뀌는 이야기들이다.

정재승 | 어크로스 | 2018. 7. | 400쪽 | 16,800원

# 담벼락

그 예순아홉 번째 이야기

「길」

제1전투비행단 운항관제대  
상사 정승룡



## 두 갈래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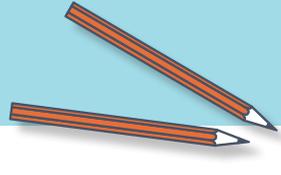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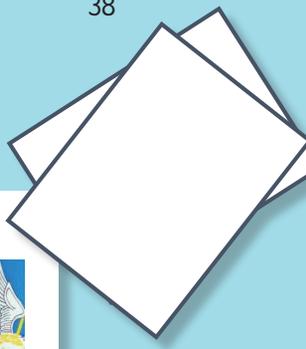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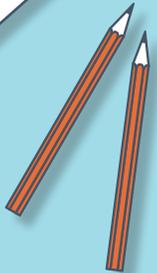
1985년 4월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월말고사를 엉망으로 치른 탓에 가출을 결심했다.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어머니의 저금통을 털어 거사 자금까지 마련하였다. 내가 살던 아파트에서 전주역까지는 도보로 30여 분 거리였다. 그 일대는 이제 막 개발되어 대로변 주변으로 건물들이 들어섰고 그 뒷길로 여관을 비롯한 유흥업소들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었다. 길은 두 갈래였다. 왕복 8차선의 넓은 대로변과 유흥가. 난 유흥가 길을 선택했다.

근 20여 분 걸었을까? 전주역에 무사히 다다랐을 무렵, 나를 향해 다가오는 두 그림자가 보였다. 자세히 보니 총을 멘 경찰관이었다.(그 당시는 총을 멘 경찰이 흔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의경이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두 사람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 난 고개를 숙이고 종종걸음으로 넓디넓은 전주역 광장을 가로질러 역으로 들어갔다. 서둘러 서울로 가는 열차표를 사려는데, 아뿔싸! 서울 가는 열차는 세 시간 뒤에나 온다는 것이었다. 대신 이리(지금의 익산)로 가면, 30분마다 서울로 가는 열차가 있으며 마침 15분 뒤에 이리행 열차가 도착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표를 사고 대합실 의자에 앉아 한숨 돌리는데, 아까 만난 두 명의 경찰관이 저만치 대합실 입구 옆에서 흘끔흘끔 내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다. 순간 온몸이 굳으며 입이 말랐다. 아마 곧장 나를 쫓아온 듯 했다. 애써 태연한 척을 하는데 그들은 슬금슬금 내 쪽으로 다가왔다. 곤색 경찰관 제복에 정모를 썼고 허리엔 곤봉, 어깨엔 M16A1 소총을 멘 두 명의 경찰관이 내 앞을 지나가기가 싫더니 획 돌아보고 웃으며 “꼬마야, 어디 가냐?” 물었다. “이리 가는디요.” “이리엔 왜?” “저...공계...큰집 가는디요” “큰집이 이리 무슨 동인데...?” “.....”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 하는 나를 부축하며 “꼬마야, 같이 가자.”하며 일으켜 세우더니 전주역 광장 옆의 파출소로 데려갔다.

잠시 후, 연락을 받으신 부모님과 두 여동생이 들이닥쳤고 경찰관들께서 말리지 않으셨더라면 아버지에게 죽지 않을 만큼 맞을 뻔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로변을 지나가며 난 괜히 유흥가 뒷길로 가서 걸렸다면 후회를 곱씹었다. 그날 아버진 회초리 대신 탕수육을 푸짐하게 사주셨다.

내가 정말 유흥가 뒷길이 아닌 대로변으로 갔더라면 가출에 성공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찌되었을까? 모골이 송연해진다. 두 갈래 길에서 난 정말 운 좋게도 경찰관을 만나는 길로 갔던 것이다. 근 십년 뒤, 하사로 임관하여 휴가를 나오던 때에 그 파출소를 찾아갔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다. 나를 발견한 두 의경 중 한 분은 경찰관이 되어 조치원에서 근무 중이라고 하셨다. 전화연결이 되어 잠시 인사를 드렸다. 꼭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고 어느덧 삼십여 년이 흘렀다.



제18전투비행단 작전지원전대 보급대대  
상병 차목원



같은 길, 다른 길

사람은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동상이몽이란 말도 있듯이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르다. 가족처럼 오랜 기간을 같이 지냈어도 생각하는 것이 매우 다르다.

아버지와 단 둘이 뉴욕여행을 한 적이 있다. 여행사 없이 간 자유여행으로 내가 가이드를 맡아 아버지를 안내했다. 그런데 숙소를 찾아 갈 때도, 엠파이어스테이트 같은 관광지를 갈 때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나에게 물으셨다. “정말 이 길이 맞아?” 그때마다 나는 스마트폰 지도를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한 번도 목적지를 잘못 찾아간 적이 없지만 아버지는 몇 번이고 나에게 말했다.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소리를 들으니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결국 짜증은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여행 기간 동안 매일 새벽, 아버지는 나를 깨워 스타벅스에 갔었는데, 다툼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것인지 아버지는 그날 이후 혼자 호텔을 나서셨다. 대신 돌아오신 후에는 나에게 어디를 갔다 왔고 어땠는지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노라니 아버지와 나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길을 보는 시각이 달랐다. 나에게 길은 목적지로 향하는 통로에 불과했다. 아버지에게는 달랐다. 길조차도 목적지였다. 길가에 있는 점포 하나하나,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행렬, 심지어는 광고판조차도 아버지의 목적지였다. 아버지는 어린아이가 놀이공원을 구경을 하며 즐거워하듯, 길거리를 즐기고 계셨다. 그렇기에 내가 시시한 길로 갈 때면 다른 길로 가고 싶어서 나에게 ‘투정’을 부리셨던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아버지는 혼자서도 길을 잘 찾으셨다. 아버지에게 평면으로 된 지도는 중요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도로의 풍경과 건물을 중심으로 뉴욕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다. 여행을 시작했을 때는 내가 아버지보다 뉴욕을 더 잘 알고 있었지만 여행 말미에는 아버지가 더 잘 알고 계셨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나는 뉴욕의 지리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버지는 몇 달 전에 뉴욕에 다시 갈 일이 생기셨을 때, 우리가 지냈던 호텔을 정확히 기억하셨다. 지도를 보지도 않고 타임 스퀘어에 어떻게 가는지, 센트럴파크에 어떻게 가는지를 기억하셨다. 아버지와 나는 같이 길을 걸어 다녔다. 하지만 같은 길을 걸지는 않았다. 나는 나의 길을,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을 걸었다. 나의 뉴욕은 내가 방문했던 점들의 집합인 2차원의 세계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뉴욕은 선과 선들이 모인 3차원의 세계였다. 이것이 아버지와 나의 차이였다.

제15특수임무비행단 항공정비전대 정비정비대대  
병장 양철준



오늘이라는 한 걸음

답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름이다. 군에 들어온 지 어느덧 이 년이 다 되어가는 나는 입대할 때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매너리즘에 빠져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후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유명한 그 후임은 명문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석/박사 통합과정을 밟던 중 모든 것을 중단하고 군에 들어왔다. 난 또래에서 찾기 힘든 배경을 가진 그에게 호기심이 들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학교생활은 어땠는지, 석사, 박사과정은 학부과정과 어떻게 다른지 등등 물어보던 중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후임의 꿈이 바로 디저트를 만드는 파티세라는 것이다. 기계공학과 전혀 관계없는 꿈을 듣고 놀람을 감추지 못한 채, 다시 여러 가지 질문을 그에게 던졌다. 그는 기계공학과 대학원 생활을 이야기 할 때와 달리, 활기찬 얼굴로 자신이 어떻게 자금을 모아

프랑스의 파티세 전문학교에 입학할 것인지,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내건 디저트 전문 거리를 만들 것인지 등 자신의 꿈과 열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파티세 학교를 가기 전에 군복무를 통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한 준비 또한 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해서 하루하루 더 열심히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정말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을 좇아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그 후임을 보며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하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 후임에게 오늘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을 담은 꿈을 이루는 ‘길’에서의 한 걸음이고, 어제보다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중요한 기회이기에 매 순간 더 최선을 다하면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었다. 덕분에 난 군대에서 남은 하루하루가 내 꿈으로 다가가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AF



# 책 읽는 공군

장병참여 독후감

## 돈키호테

- 순수한 의지와 인간성의 회복

세계사를 공부한 학생이라면 모두들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책,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기사와 장원, 영주의 시대였던 중세 시대에서 예술과 미(美)의 시대인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시기에 세르반테스가 쓴 유명한 책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뮤지컬 등의 다른 예술작품으로도 각색되어 호응을 끌었지만, 정작 저는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기에 직접 구입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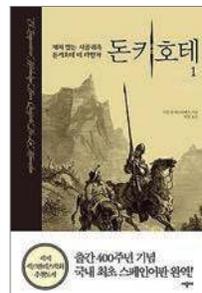
책에는 기사도 소설을 섭렵한 변방의 늙은 귀족이 등장합니다. 그는 기사도 소설을 너무 많이 읽은 나머지 자신을 돈키호테라는 기사로 칭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기사로서 말과 장비를 갖추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 취급했지만, 산초 판사는 자신을 섬의 영주로 만들어주겠다는 돈키호테의 말을 듣고 함께 따라 나섭니다. 돈키호테는 모험 중에 늙은 말 '로시난테'를 타고 풍차를 공격하고 무찌르려 돌격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쓰러지고 다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돈키호테는 멈출 줄 모릅니다. 그저 지나가는 마을 처녀들을 공주라고 칭하기도 하고 마을의 이발사를 공격하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비웃는다 하더라도, 쓰러진다 하더라도 그는 계속해서 모험을 해 나갔습니다.

돈키호테는 다른 고전 소설속의 일반적인 주인공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는 이상주의자였으며, 진취적이었고, 입체적입니다. 물론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었으며, 무모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의지의 사나이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행위를 밀고 나가려 할 때 다른 사람의 반대와 시선 때 문일 수도 있고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있어서는,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의지를 돈키호테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 죽음으로써 끝을 맺습니다. 돈키호테 역시 죽음을 맞지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큰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살았고, 자신이 주인공이 된 기사의 모험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도 과연 그러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회들은 우리의 의지의 부족으로 인해 비롯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돈키호테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모한 도전과 화려한 판단력은 지양하되,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의지와 열망은 배워 후한 없는 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무기력함과 방황에 빠져 있거나, 자존감이 떨어진 장병에게 이 책을 적극 권장합니다.

글  
제18전투비행단  
병장 박상연



돈키호테

세르반테스 지음  
시공사 펴냄

##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 짝 막힌 도시인들의 창문이 되어주는 책

나는 늘 도시에 살아왔다. 그러나 근 25년 일생 분주한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내 거주환경에 일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마치 숲에 있으면서 나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제 와서 생각한다. 유현준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는 콘크리트 숲에 살아왔던 내가 그 숲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찬찬히 둘러보게 한 좋은 기회를 준 책이다.

이 책은 도시에는 도로와 건축물로만 이루어진 콘크리트 정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줬다. 도시는 그 주민과 사회의 역사, 문화 그리고 이야기의 집체이고 방대한 기록물이다. 내가 복무하고 있는 지역인 부산의 구불구불하고 위험한 도로를 사람들은 불평하고 싫어하지만, 사실 그것은 6.25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처절한 생존의 흔적이다.

물론 부산 모든 지역이 그렇지는 않다. 내가 살고 있는 해운대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재개발로 도로망을 재정비하고, 건물도 번쩍번쩍한 유리궁전이 도처에 들어섰다. 그로 인해 부산 구도심은 정겨운 이미지로, 신도심 역할을 하는 해운대는 신세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도시는 그 주민과 사회의 역사, 문화 그리고 이야기의 총집체이다. 그래서 같은 나라에 있는 도시, 심지어 한 도시 내 다른 지역이라도 분위기가 판이하게 다른 것은 당연하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도시가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날이 지나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기계가 우리 삶에 일부분이 되는 것이 일상이고 너무나도 당연히 여긴다. 삶은 인간의 온기가 아니라 기계로 채워지고 있다. 도시도 마찬가지이다. 도로가 넓어지고 하늘은 회색빛으로 채워지면서 인간이 설 자리는 잃고 있다. 그러니 예전부터 유행하던 소위 '힐링'문화와 자연으로 도피하고 싶은 도시인들의 심리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저자

글  
제5공중기동비행단  
상병 김경모



는 도시 내 공원과 카페, 그리고 인도를 넓히는 것을 해답으로 제시한다. 즉, 사람중심의 도시로 탈바꿈하자는 것이다.

서울 광화문 앞 세종로와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두 대도시의 중심도로를 비교는 사람중심 도시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유동인구는 많지만 붐빈다고 느껴지지 않는 세종로에는 도로 양옆 사무실 건물과 중앙에 덩그러니 있는 돌로 된 광장밖에 없다. 사람이 여유롭게 머물 공간이 없으니 세종로는 사람들이 지나치는 도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반면, 차도는 비교적 좁지만 널찍한 인도에 수많은 카페가 즐비하게 들어선 샹젤리제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카페에서 쉬며 수다를 떠드는 파리 시민들의 모습은 도시 자체가 여유롭고 인간적인 곳이라는 인상을 준다.

책을 덮으면서 나는 도시도 하나의 생명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안의 사람, 건물, 도로는 그 거대한 생명체의 세포와 혈관이 같다. 도시를 건강하게 가꾸고 싶다면 진단부터 정확해야 한다. 그리고 유현준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는 도시의 건강을 짚어주는 완벽한 진단서이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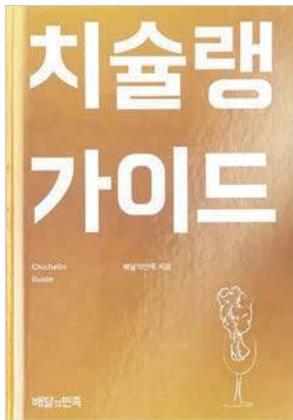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유현준 지음  
엘유문화사 펴냄

## 치킨, 좋아하세요? 『치술랭 가이드』

첫 독자의  
편집후기



『치술랭 가이드』

배달의민족 지음 | 북스톤 펴냄  
236쪽 | 12,800원

한국인의 65.4%는 주 1회 이상 닭고기를 먹는다. 2016년 한 해에 1가구당 13만1,485원어치 닭을 사 먹었으며, 지난해에는 1인당 14.58kg의 닭을 섭취했다. 10호 닭이 951~1,050g 정도이므로 한 사람이 1년 동안 약 15마리의 닭을 먹은 셈이 된다. 심지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기간에도 닭고기 소비감소율은 6.4%에 불과했다.

한편 한국인의 닭고기 취식비중은 취식(39.4%)과 외식(25.5%), 배달(35.1%)로 구분된다. 배달의 경우 닭볶음탕, 삼계탕, 찜닭, 닭갈비 등에 비해 튀김류(치킨, 강정)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정도면 닭고기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에 하나이며, 그중에서도 ‘치킨’이 손꼽힌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치킨을 자세히 다루는 책이 드물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지난 7월, 다행히 ‘우아한형제들의 배달 주문 서비스 ‘배달의 민족’이 이상함을 바로잡았다. 배달의 민족은 지난해부터 ‘치물리에(치킨과 소물리에의 합성어로 치킨 전문가라는 의미) 자격시험<sup>1)</sup>’을 시행해 총 119명의 합격자들을 배출했는데, 1회 시험에 합격한 ‘치물리에’들과 함께 치킨의 모든 것을 집대성한 책이 바로 『치술랭 가이드』이다.

어떤 치킨이 가장 맛있는지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치킨 맛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치물리에들은 ‘BBQ’의 ‘황금올리브 치킨’을 1위로 꼽았다. 치물리에들은 “후라이드계의 ‘수학의 정석’ 같은 치킨이다.”, “특유의 향과 바삭함이 타

1) 치킨에 대한 이론과 맛 구별 등을 통해 치킨 전문가를 선별하는 시험. 올해 치러진 제2회 치물리에 자격시험에는 모의고사에 58만 명이 응시했으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0명이 시험을 치러 47명이 합격했다.



사의 제품과 비교 불가하다.”, “크리스피한 튀김옷과 풍부한 육즙이 끝내준다.”고 평했으며, 2위와 3위로는 각각 ‘교촌치킨’의 ‘교촌허니오리 지날’과 ‘BHC’의 ‘뿌링클’을 선정했다.

치킨의 맛을 가장 잘 살려주는 소스로는 BBQ의 비비 소스, BHC의 뿌링뿌링 소스, 투촌치킨의 어니언갈릭 드레싱, 교촌치킨의 레드디핑 소스, KFC의 스위트 칠리 소스, 디디치킨의 까르보나라 소스, 네네치킨의 짜용, 굽네치킨의 마블링 소스가 선정됐다. 치물리에들은 “치킨 한 마리를 여러 가지 맛으로 즐기고 싶다면, 이 소스들을 추가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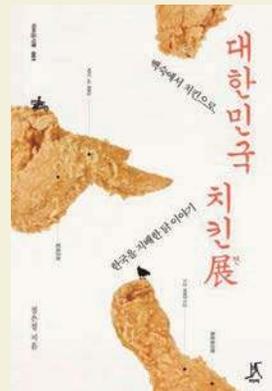
또한, 치물리에들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치킨집 중 50곳을 선정해 그 집의 대표메뉴를 뽑아 소개했다. 매일 새 기름으로 60마리만 튀기는 ‘60계치킨’의 대표메뉴는 청양고추를 갈아 특제 양념과 버무린 고추 치킨이다. ‘별난 셰프가 만드는, 지구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별난 맛’이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되는 ‘별별치킨’에서 치물리에들이 추천한 메뉴는 별별마늘닭이다. 한 치물리에는 “마늘의 알싸함과 달콤함의 조화가 좋고, 불 맛이 가득하다.”라는 평을 남겼다.

치킨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도 담겨있다. ‘치킨은 남지 않는다.’는 것이 치물리에들의 원칙이지만, 만약 치킨이 남는다면 전자레인지에 돌려 치킨 속 수분을 날린 후에 보관하라고 조언한다. 그렇게 하면 다음 날에도 바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은 치킨을 그냥 먹기 싫다면 고슬고슬한 밥에 남은 치킨, 다진 마늘, 다진 대파와 간장을 넣어 치킨 대파 볶음밥을 만들거나, 남은 치킨을 즉석 카레에 넣어 먹는 등의 방법도 소개했다.

이 외에도 편의점에서 파는 치킨을 소개한 ‘편의점 치킨의 세계’, 치킨 맛 과자인 ‘닭다리’, ‘스윙칩 간장치킨 맛’, ‘오감자 양념치킨 맛’ 등을 소개하는 ‘치킨 맛 과자의 세계’, 전국 각지의 소문난 치킨집과 그 주변의 명소를 소개하는 ‘치킨 여행 코스’, 특정 치킨과 어울리는 맥주, 전통주, 소프트 드링크 등을 소개하는 ‘이 치킨에 이 음료’, 집에서 닭으로 단순한 치킨 이상의 고급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 ‘치킨이 파인 다이닝을 만났을 때’ 등 치킨에 관한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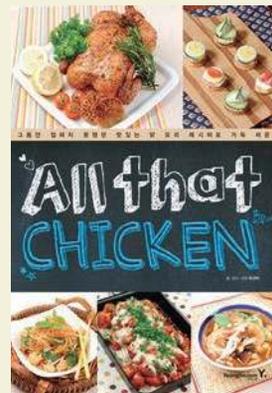
어느새 입에 군침이 돌고 있지 않은가? 치킨을 좋아하는 당신, 그렇다면 당신에게 『치슐랭 가이드』는 올 가을 필독서이다. **AF**

01.



『대한민국 치킨전: 백속에서 치킨으로, 한국을 지배한 닭 이야기』 정은정 지음 | 따비 펴냄 | 288쪽 | 14,000원

02.



『올 댓 치킨』 유선미 지음 | 영진닷컴 펴냄 | 248쪽 | 6,500원

01. 음식의 계보와 지난 과정에 대한 탐구에 그치지 않고, 음식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따비음식학’ 제1권 『대한민국 치킨전』. 이 책은 치킨의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면면과 서민음식, 문화, 애환을 소개하는 책이다. 저자는 치킨을 단지 ‘조각내 튀긴 닭’이 아닌 산업, 문화, 웃음, 눈물, 비애, 기쁨, 축제가 배어있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02. 닭고기로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요리 레시피 북 『올 댓 치킨』. 대중적인 식재료 한 가지로 만드는 다양한 요리를 소개하는 ‘올 댓(All that)’ 시리즈의 하나로, 닭고기 요리에 관심이 많은 주부와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닭고기 레시피를 전달한다. 닭고기라는 대중적인 식재료를 통해 어떠한 상황이든 어울리는 요리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함께 먹으면 맛있는 곁들임 요리법까지 담겨있다.

철학, 군인정신을 말한다  
일본의 영혼, 무사도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글·사진  
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  
철학박사)

# “꽃은 벚꽃, 사람은 사무라이?”

### 일본의 영혼, 무사도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 “아마사키 야스요의 최후”

“총탄이 떨어지면 총검으로 돌격하라. 총검이 부러지면 맨주먹으로 맞서라. 주먹이 찢어지면 이빨로 적을 물어 죽여라. 한 명이라도 더 처치해야 한다. 몸이 부서지고 심장이 멎으면 혼백이 되어 적진으로 돌격하라!”

1943년 5월, 아투 섬 혈전 당시 일본군 지휘관 아마사키 야스요(山崎保代, 1891~1943) 대좌가 병사들에게 했던 훈사다. 이미 승부가 기울어진 상황, 그래도 일본군은 18일을 더 버텼다. 최후의 순간, 대좌는 부상병들에게 청산가리로 자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곤 남은 140명을 추슬러 연합군 진지를 향해 진격을 감행했다. 결과는 전

원 전사였다. 이 모습을 본 미군은 소름이 돋았다. 서구의 군대는 병력의 대부분을 잃으면 항복을 택했다. 그 편이 무의미한 희생을 막는 최선이라 여겼던 까닭이다. 반면, 당시 일본군은

전장 상황이 극도로 불리해지면 오히려 ‘만세 돌격’을 했다. 일제히 만세를 부르며 자살에 가까운 공격을 했다는 뜻이다. 생포될 상황이 닥치면 그들은 기꺼이 자결해버렸다. 이런 모습은 용기였을까, 무모함이었을까?

#### “꽃은 벚꽃, 사람은 사무라이”

2003년 2월, 이라크에 파병되는 일본 육상자위대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무사도(武士道) 국가의 자위관을 내세우며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무사도란 일본말로 ‘부시도’, 즉 ‘사무라이 정신’을 뜻한다. 일본은 제국주의 전쟁 시대나 지금이나 사무라이 정신을 자신들의 영혼으로 내세운다. 그들은 가슴을 펴며 “꽃은 벚꽃, 사람은 사무라이”라고 말한다. 화려하게 폼다한 거머잡이 지는 벚꽃처럼, 무사는 죽을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목숨을 던지는 것이 영광이라는 뜻이다.

이쯤 되면 왜 군국주의자들이 아마사키 야스요 부대의 죽음을 옥이 부서지듯 아름다운 최후, 즉 옥쇄(玉碎)라 부르는지 이해가 될 듯하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의 행동은 사무라이 정신-무사도와는 거리가 멀다.

역사학자 에리히 홉스봄(Eric Hobsbawm, 1917~2012)은 우리가 오래된 전통이라 알고 있는 것들은 근대에 와서 생겨난 “만들어진 전통”일 뿐이라고 잘라 말한다. 일본의 무사도도 다르지 않다. ‘사무라이 정신’에 대한 책은 니토베 이나조(新渡戸 稻造, 1862~1933)가 1899년에 영어로 쓴 <무사도, 일본의 정신(BUSHIDO, The Soul of Japan)>이 최초이다. 이나조는 왜 사무라이 정신을 설명하는 책을 영어로 쓰게 됐을까? 그가 주장한 사무라이 정신은 아마사키 야스요의 행동과 부합할까?

#### “무사도는 어떻게 일본의 정신이 되었나”

“유럽에서는 종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종교 교육을 하지 않는다더군요. 그러면 무엇으로 도덕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독일 유학 중에 이나조가 벨기에 법학자에게 받은 질문이다. 이나조는 크게 당황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일본의 정신’이라 할만한 것이 떠오르지 않았던 탓이다. 그러나 일본에도 어린 시절부터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는 특유의 도덕규범은 분명 있었다. 이나조는 이를



정리하여 '무사도'라 이름 붙였다. 나이가 이를 아마토다 마시, 즉 일본의 정신(大和魂)이라 부르고, 이를 외국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영어로 책을 썼다. 서문에는 '서양에 기사도가 있듯, 일본에는 무사도가 있다.'고 적었다.

당시 청나라를 누른 일본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무사도>를 읽은 서구인들은 일본이 부강한 국가가 된 이유는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굳게 믿게 됐다. 1905년, 일본은 러시아까지 꺾었다. 당연히 일본인들의 자부심도 하늘을 찔렀다. 이 기세를 타고 1910년, <무사도>는 일본어로 번역되어 그들 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무사도』의 사무라이 정신이 일본의 영혼으로 뿌리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니토베 이나조가 말하는 '사무라이 정신'의 내용은 우리에게 그다지 낯설지 않다. 몇몇을 빼고는 우리의 선비정신과 닮아있는 까닭이다. 이나조는 사무라이 정신의 핵심으로 의(義), 용(勇), 예(禮), 성(誠), 충(忠)을 꼽는다. 하나같이 선비들이 강조하던 덕목들이다. "무사는 돈을 추구하지 않는다.", "진짜 용기는 살아야 할 때 살고 죽어야 할 때 죽는 것이다.", "명예란 수치를 아는 데 있다.", "무사의 임무는 패배한 자를 사랑하고 거만한 자를 눌러 평화를 닦는 데 있다.", "무사는 두 말을 하지 않는다." 등등 사무라이들의 생활 자세를 뜻하는 말들도 우리네 선비 정신과 맥이 통한다.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만한 지도층의 윤리라 할만하다. 이렇게 도덕과 평화를 중시한 가치관이 어떻게 침략 전쟁 시기에는 일본군의 무모함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쓰였을까?

### “강인한 정신과 무모함은 다르다”

옛 일본의 무사들은 싸움을 벌이기 전에, 자기 가문의 역사와 전훈(戰勳)에 대해 적장 앞에서 길게 설명을 늘어놓곤 했다. 이것을 자신과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던 까닭이다. 하지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오랜 전통은 소용이 없었다. 몽골인들이 일본어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그들은 말로 설명하는 대신, 자신들의 명예를 상징하는 작은 깃발을 몸에 매달았다. 이것이 바로 사시모노(指物)다.

명예에 대한 일본인들의 집념은 침략 전쟁 시기에도 여전했다. 이것이 '정신의 우월함'을 유독 강조하는 분위기로

일본의 식민학자 니토베 이나조.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주장을 펼쳤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무사도』를  
쓴 시점은 일본이 스스로  
사무라이 계급을 없앤 이후였다.

이어졌다. 물자도 부족하고 장비도 변변찮은 상황에도 결연한 정신만큼은 적보다 훨씬 뛰어나기에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런 가운데 무사도는 일본군에게 입맛에 맞게 쓰였다.

물론 강인한 정신은 중요한 전투력이다. 그러나 무모함은 되레 전투력을 갉아먹는다. 러일전쟁 당시 203고지 전투에서 일본군은 중기관총과 철조망으로 무장된 병커에 희망 없는 총검돌격을 거듭했다. 지휘관들은 대형 참사와 다를 바 없었던 전술에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나약한 군인이라 비난 받을까 두려워서다. 이렇듯 정신력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객관적인 상황 분석과 대안 모색을 어렵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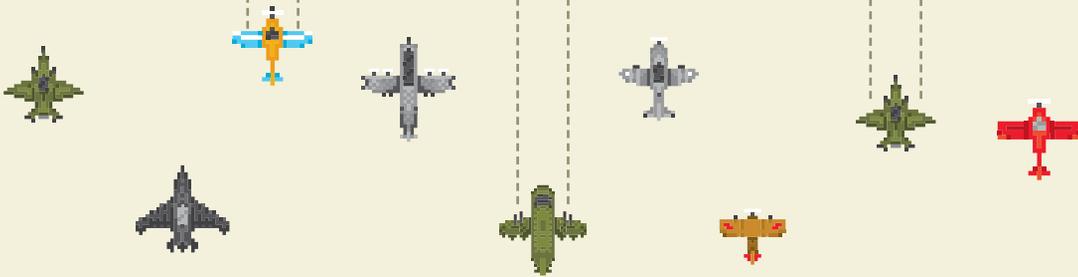
“칼은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고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무사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에 있기 때문이다.” 이나조가 말하는 사무라이 정신의 본질이다. 이 말을 제대로 새겼다면 옛 일본 권력자들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카미가제 자살 공격을 꾸밀 수 있었을까?

니토베 이나조는 “짜우지 않고 이기고, 피를 보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야마사키 야스요 대좌의 결연함은 과연 최선이었을까? 그는 사무라이 정신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이나조의 '무사도'는 군인정신의 본질에 대해 깊은 물음을 던진다. AF



## 슈팅게임으로 돌아온 태평양 전쟁

# Play the Fly



### 슈팅게임으로 돌아온 태평양 전쟁

전투기의 제공권 장악이 전략 우위의 핵심 요건으로 우뚝 선 전장은 아마도 2차대전일 것이다. 유럽의 항공전은 발전한 비행기술의 격돌 현상이었지만, 지구 최대의 전장인 태평양 전선의 공중전은 해군 교리를 송두리째 바꿀 정도로 굉장했다.

거함거포주의<sup>1)</sup>의 영향 아래에 있던 해군 교리는 항공모함의 출현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함포보다 더 먼 거리에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함재기<sup>2)</sup>의 효용은 '최종병기'로 여겨지던 거함들을 역사 속으로 밀어내고 해전의 양상을 새로 썼다. 이러한 임팩트는 항공기 전투를 다룬 게임들에서도 두드러지는데, 아케이드 게임 '1942'와 PC게임 '윙스 오브 퓨리'가 그 예시다.

### 초기 비행슈팅게임의 선구자, '1942'

제2차 세계대전이 배경임을 제목에서부터 명백히 드러내는 아케이드 슈팅 게임 '1942'는 전자오락실 초기를 휩쓸었던 증스크롤 비행 슈팅 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비행 슈팅 게임의 형태 중 상당부분이 '1942'에서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적기를 격파할 때 나오는 아이템을 획득하여 기체의 공격이 더 강해지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했고, 새로운 기능으로 위기회피 기능이 붙었다. 특정 버튼을 누르면 아군 기체는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쏟아지는 모든 적의 총알을 피하는 회피기동을 하는데, 이는 후대에 이른바 '핵폭탄'으로 불리는 전멸폭탄 방식으로 이어지면서 위기회피 기능의 원조로 꼽히는 기술이다. 비행 슈팅 게임의 발전사 속에서 '1942'는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을 채택하여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1942'의 배경은 태평양 전쟁이다. 항공모함에서 발

1) 거함거포주의 : 함포의 사거리와 화력, 함대의 크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사 사상.  
2) 함재기 : 항공모함 등의 함정에 적재되어 운용되는 항공기.



01

02



- 01. 태평양전쟁 당시 P-38 라이트닝의 활약을 모티브로 삼은 고전 슈팅게임 '1942'. 슈팅게임의 역사에도 한 획을 그었다.
- 02. PC용 태평양 항공전 게임 '윙스 오브 퓨리'. 일본군의 태평양 제도 기지를 폭격하고, 제로센과 공중전도 펼쳐야 한다.

진하는 미군 항공기 P-38 라이트닝은 비록 함재기가 아니어서 고증오류이긴 하지만, 미군기와 제로센류의 일본 항공기가 격돌한다는 컨셉하에 실제 태평양 전쟁의 무대인 미드웨이, 사이판, 오키나와 등을 활용한다. 적지 않은 초기 오락실 세대는 태평양 전장을 오락실에서 활보하고 다닌 셈이다.

**PC게임 속의 태평양 항공전, '윙스 오브 퓨리'**

8비트 PC 애플II와 IBM-PC용 초기버전으로 국내에서도 크게 유행했던 '윙스 오브 퓨리'는 오락실의 종스크롤 비행 슈팅과는 조금 다른, 사이드 뷰를 통해 전투기 운용을 다룬 게임이다. 마찬가지로 항공모함에서 발진해 적이 주둔하고 있는 섬이나 적 전함, 혹은 항공모함을 격파하는 이 게임 또한 태평양 전장을 다룬 것으로 유명하다.

주력기로 등장하는 전투기는 미군의 함재기인 F6F 헬캣이

다. 실제 태평양 전쟁 중 일본군 제로센에 대해 카운터 펀치처럼 활약한 헬캣은 게임 '윙스 오브 퓨리' 안에서도 적 제로센과 박진감 넘치는 공중전을 펼친다. 비행장면을 옆에서 비추는 사이드 뷰 카메라워크 덕분에 '윙스 오브 퓨리'의 공중전은 고도와 속도를 동시에 활용하는 비행전술의 수행이 가능하다. 덕분에 종스크롤 방식의 비행슈팅게임과는 또 다른 재미를 자아내는데, 제로센과 맞물리며 꼬리를 물기 위해 끝없이 선회하는 즐거움은 다른 게임에서 맛보기 어렵다.

실제 일본 섬기지의 느낌이 나는 막사와 대공포대를 급강하 폭격으로 터뜨리고, 항공모함에서 이륙하고 착함하는 어려움 또한 구현하여 함재기의 의미 또한 적절하게 살아 있다. 폭탄과 로켓, 가끔 적의 대형 함선을 공격하기 위한 어뢰까지 장착 가능한 만능의 헬캣 파일럿으로 활약해봤다면, '윙스 오브 퓨리'를 쓸쓸한 재미에 상당한 고증까지 엮어진 고전 게임으로 기억할 것이다. AF



# Hollywood English

## 시카리오 : 암살자의 도시

이 영화는 범죄 스릴러(crime thriller)입니다. 장르에 걸맞게 제목 '시카리오(Sicario)'의 뜻은 '암살자(hitman)'입니다. 우리나라 수입·배급사가 붙인 부제 '암살자의 도시'는 영화의 주요 무대인 멕시코입니다. 도입부엔 복선 역할을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자넨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나무를 흔들어서 큰 혼란을 일으킬 그런 기회를 말이지.

(You're giving us the opportunity to shake the tree and create chaos)”

'나무'는 미국에 뿌리내린 멕시코의 마약 밀매 범죄조직 '소노라 카르텔'입니다. '기회'는 이 카르텔의 수뇌부를 소탕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자네'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여성 요원 케이트입니다. 영화 전체를 통해 그녀의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눈도 향하게 됩니다.

앞 대사의 화자(話者)는 비밀리에 특수작전을 지휘하는 태스크포스 팀장 매트입니다. 그의 임무는 '소노라 카르텔'의 심복 기에르모와 마누엘 형제, 그리고 카르텔 두목 파우스토를 미국 법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케이트를 직접 발탁한 팀장은 그녀에게 법무부 고문(顧問) 역할을 맡깁니다.

영화의 첫 무대는 미국 애리조나 주 모처. 그곳엔 '소노라 카르텔'의 안전 가옥이 있습니다. FBI 요원들과 기동타격 대원들이 합동작전을 펴 그곳을 급습하는데, 그때 발생한 폭발로 아군 두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장은 후속 작전을 짭니다. 안전 가옥을 폭파하라고 지시한 기에르모를 체포하고, 그가 미국에 마약을 옮길 때 쓰는 비밀 통로를 찾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기에르모는 붙잡히고 땅굴 위치도 드러납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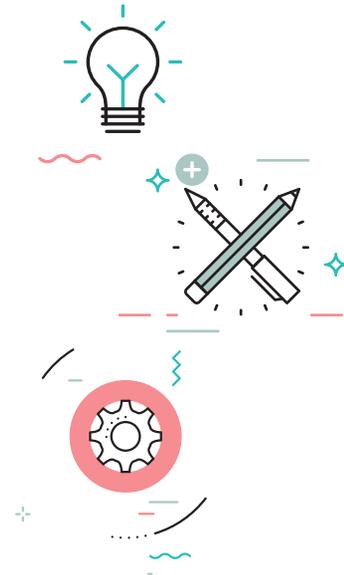




# 트렌드가 보인다

## 총동구매를 부르는 백화점의 비밀들!

가을 옷 장만을 위해 들어선 백화점.  
하지만 어느새 시간을 잊은 채 나도 모르게 지갑을 열게 되는 그곳!  
무심코 쇼핑하느라 깨닫지 못했던 백화점 곳곳에 숨은 비밀,  
한번 찾아볼까요?



### 비밀1. 백화점 입구와 1층에서 나는 기분 좋은 향기

백화점 1층 입구엔 향기로운 화장품 매장이, 지하 식품 코너 주변엔 꽃집이 있어요. 코끝을 맴도는 향기 때문에 발걸음이 멈추는 원리 때문!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은 에스컬레이터 각 층마다 샤넬 No.5 향수를 분사하기로 유명했죠. 에스컬레이터 주변 매장에 향이 맴돌 때면 매출이 30~40%나 증가할 정도로 향기는 굉장한 위력을 지닌답니다. 1960년대, 에스티 로더는 파리 라파예트 백화점에 매장을 내고 싶었지만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아 입점을 거절당했는데요. 그후 백화점 바닥 몇 곳에 에스티 로더 향수를 (몰래)고의로 뿌려두었습니다. 향기를 맡은 손님들의 문의가 백화점에 몰렸고 결국 에스티 로더는 입점에 성공합니다.



### 비밀2. 1층에는 화장실이 없다

자, 향기에 이끌려 들어선 백화점 1층.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죠. 화장품과 명품 의류, 가방, 시계 매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백화점 총매출의 무려 30%가 이곳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여자들이 들렀다가 그냥 지나치기 힘든 총동구매가 가능한 가격대의 제품과 좋아하는 브랜드가 밀집된 곳! 그런데 이곳엔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하려면 윗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화장실'만 들렀다가 빠져나가지 않고 백화점에 더 머물게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 비밀3. 찾기 힘들고, 좁고, 느린 엘리베이터

백화점 엘리베이터는 왜 이렇게 찾기 힘든 걸까요? 미로처럼 복잡한 백화점을 헤매다가 겨우 찾아 엘리베이터를 타도 왜 이렇게 느리고 좁은지! 결국 에스컬레이터를 찾게 됩니다. 이는 고객이 최대한 빨리 빠져나갈 수 없도록, 엘리베이터를 찾는 동안 최대한 많은 쇼핑 스폿을 지나치게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앞에 세일 매대를 진열한 것도 같은 원리죠.



#### 비밀4. 지갑을 여는 조명과 인테리어 색

총동구매엔 향기뿐 아니라 '색'도 영향을 줍니다. 백화점 안이 눈부시게 하얀 이유는 흰색과 파란색, 녹색처럼 차가운 계열의 색상이 소비 심리를 부추기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피팅룸은 은은한 노란색 조명이라는 걸 눈치 채셨나요? 사람이 더 예쁘고 부드럽게 보이는 노란빛은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

#### 비밀5. 절대 틀지 않는 음악 장르

백화점 1층에서는 밝고 활기찬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2~3층 여성 의류 섹션에 들어서면 유동 인구가 확 줄어들고 음악도 달라집니다. 고급품이 판매되는 층일수록 템포가 느린 음악을 틀었을 때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용품을 파는 층에서는 활발한 댄스곡이 나옵니다. 하지만 백화점에서 여간해선 틀지 않는 장르의 음악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독주곡과 랩 파트가 긴 댄스곡! 이 곡들은 쇼핑 집중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 비밀6. 시계와 창문이 없고, 거울이 가득한 곳

에스컬레이터와 매장과 매장 사이, 백화점 안에선 눈만 돌리면 반짝이는 유리과 거울이 나를 비춥니다. 거울 앞을 지나면 무의식중에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느라 발걸음이 느려지는 심리를 위해 배치한 것입니다. 게다가 거울은 실내를 넓어 보이게 하죠. 공간이 넓을수록 총동구매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벽시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창문도 없어 해가 지는지, 비가 오는지도 알 수 없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에 집중하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 비밀7. 눈높이 30cm 위아래, 고가의 주력상품

백화점 매출의 60%는 고객 눈높이 30cm 위아래에 진열된 제품! 따라서 백화점은 이 위치에 주력 상품을 진열합니다. 당연히 가격도 비싸겠죠?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사려면 허리를 숙여 진열대 아래를 둘러보세요!

#### 비밀8. 큼직한 쇼핑백과 카트

백화점 쇼핑 카트가 꽤 크다는 생각 안 해봤나요? 백화점뿐 아니라 마트에서도 카트에 하나둘 담다 보니 어느새 수십만 원어치 장을 보는 일이 부지기수. 스웨덴의 컨설팅 그룹 '마틴 린드스툼'은 쇼핑 카트 크기가 2배 커진 후, 매출이 19%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단 채워 넣는 심리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계산대에도 쇼핑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걸보기에 평평한 바닥이지만, 계산대 근처는 오르막입니다. 무거운 카트에 밀려 걸음걸이가 느려지는데, 이때 계산대 주위의 물건도 집어 들게 됩니다. 반대로 계산이 끝나면 내리막 경사입니다. 다음 손님을 위해 재빨리 자리를 비키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

#### 비밀9. 남자들이 기다리는 전용 휴식 공간

백화점에 들어선 지 30분도 안 되어 하품을 하며 앉을 자리를 찾는 남자들. 남자들은 구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구입해 곧바로 밖으로 나가려는 반면, 여자들은 각 층 매장을 다 돌아다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 관련 브랜드를 고층에 배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백화점에는 남자들이 따로 쉴 수 있는 남성 전용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영등포점에 남성 전용 휴게공간 '멘즈 라운지'가,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게임을 즐길 수 있는 'XTM 휴게실', 목동점에는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남성들에게 쇼핑개인교습을 해주는 코디바도 있죠! 롯데 백화점 '클럽모나코' 매장엔 남성 전용 미용실인 바버샵도 입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쇼핑계의 큰손은 남성 고객이라는 사실! 신세계 백화점은 매년 상승하는 남성 고객의 매출에 남성 전용 신용카드도 만들었죠. **AF**



# JAZZ

## 재즈는 노력의 산물



언젠가 한 친구가 필자의 작업실에 놀러 온 적이 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재즈 음반 한 장을 들려 달라고 내게 부탁했다. 제일 좋아하는 재즈가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매번 당황하는데, 그럼에도 나는 다소 즉흥적으로 찰리 파커의 [현악 오케스트라와 함께 With Strings]를 뽑아 들었다. 이 앨범에 담긴 <단지 친구로 Just Friends>를 들을 때마다 나는 도입부에서부터 늘 탄복한다. 그때도 나는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작은 소리로 탄성을 터뜨렸다. 함께 묵묵히 음악을 듣던 친구는 내게 물었다.

“찰리 파커 흑인이지?”

“그럼.”

“역시 재즈는 흑인이 해야 해.”

나는 그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으므로, 찰리 파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친구에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나는 파커의 인생이 심한 약물 중독으로 서른 다섯 살의 이른 나이에 끝났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친구는 대뜸 답했다.

“역시 약물을 해야 재즈를 잘 연주할 수 있어.”

친구의 말은 재즈를 깎아 내리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흑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 악물도 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로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저 멀리의 '신비의 세계'에 재즈가 있다는 '경외'의 뜻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단지 내 친구의 독창적인 시각이 아니다. 재즈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이러한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재즈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에서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생각들은 모두 '편견'이며 결과적으로는 재즈의 가치를 깎아 내리는데 기여한다.

재즈의 거장들 가운데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 음악이 애초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의해 시작되어 그들의 공동체 내에서 주로 연주되었고 재즈란 그들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재즈 역사에서 흑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예외도 얼마든지 많다. 빅스 바이더벡, 베니 굿맨, 버디 리치, 스탠 게츠, 빌 에번스, 키스 자렛, 브래드 멜다우 등은 모두 백인 연주자들이면서 일반적인 흑인 연주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재즈를 창조한 인물들이다.





찰리 파커, 재즈에 혁신을 몰고 온 그의 연주는 오로지 연습의 성과였다.



팻 메시니는 1년 200회에 이르는 정기 공연 중에도 숙소에 돌아와 꼭 연습을 한다.

더욱이 잭 티가든, 피위 러셀과 같은 초창기 재즈의 백인 명인들은 어떤가. 이들의 연주만을 듣고 그들이 백인임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당대에 그 어떤 흑인 연주자들보다 흑인적인 재즈를 들려주었다.

재즈에 흑인 문화의 요소들이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흑인들만의 독점물은 아니다. 오히려 아프리카와 유럽 문화의 혼합물로 시작된 재즈는 이미 내재적으로 다양한 음악들을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고 다양한 인종들과 문화권에서 다채롭게 발전 중에 있다.

훌륭한 재즈가 약물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믿음은 편견을 넘어 일종의 미신이다. 신경을 마비시키고 인지를 왜곡시키는 약물이 예민한 신체 반응을 전제로 한 연주력을 향상시킨다는 발상은 술 마시면 운전이 더 잘된다는 생각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한 미신은 일차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사람들 자신에 의해 만들어졌다. 환각의 상태에서 자신의 연주가 너무 훌륭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변에 약물을 했더니 연주가 너무나 잘 되더라고 떠벌리고 다닌다. 찰리 파커 역시 그들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찰리 파커의 초인적인 능력이 약물에서 나온다

고 믿고 모두들 그를 따라했다. 1940년대부터 20년간 약물은 재즈 전체를 뒤덮었다.

하지만 찰리 파커는 이미 세상을 떠나기 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약물을 하고 황홀하게 연주했던 것을 녹음하여 그 다음 날, 약물이 깬 뒤에 들어 봤다. 너무도 엉망이어서 들을 수가 없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그 전날 약의 후유증으로 구도가 치밀어 올랐다.”

오히려 찰리 파커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은 것은 그의 연습량이었다. 소년시절부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밤이 새도록 색소폰을 불다가 신발을 신은 채 잠들었던 이 연습벌레는 만약 약물을 하지 않았다면 더 오랫동안 더 훌륭한 연주를 수 없이 많이 남겼을 것이다. 존 콜트레인은 만년에 피를 토할 만큼 색소폰을 입에서 떼지 않고 불었고 클리퍼드 브라운, 오스카 피터슨, 팻 메시니, 미셸 페트루치아니의 초인적 연주들은 모두 초인적 연습량의 결과였다. 재즈 역시 모든 인간의 음악이며 그래서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AF**



— 글  
중위 원준호  
(정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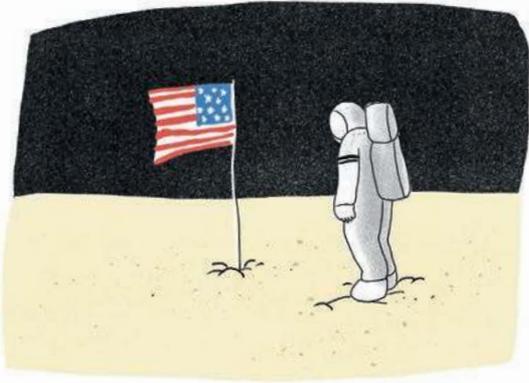


— 일러스트  
이한아  
(일러스트 작가)

생각하는 그림 

# 달에 간 암스트롱과 '그 사람'

1969년 7월 20일,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선장이었던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첫발을 내딛으며 "이것은 한 인간의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에게 있어서는 거대한 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의 이름은 전 세계에 널리 퍼졌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 회자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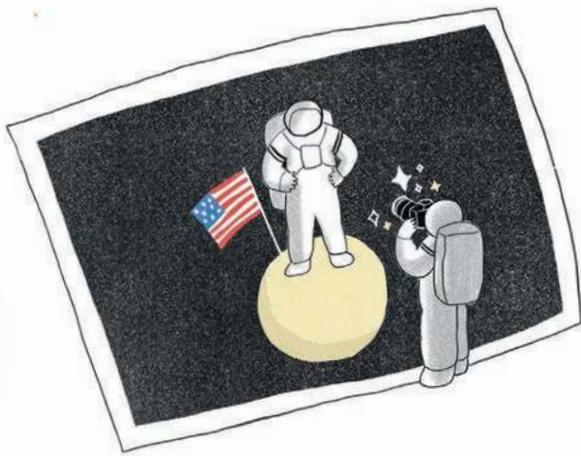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 착륙'하면 가장 먼저 암스트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역사적인 순간 달에 발자국을 남긴 사람은 암스트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아폴로 11호의 우주 비행사가 달에 깃발을 꽂고 그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진, 암스트롱 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그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착륙선 조종사였던 '버즈 올드린'이었습니다.

올드린은 암스트롱과 함께 달 표면을 걸어 다녔지만 최초가 아니라는 이유로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폴로 11호 이후 거의 잠적하다시피 했던 암스트롱과는 달리 올드린은 수많은 대중 매체에서 활약하며 우주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알리고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하면, 우리는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에서 그를 상징화한 주인공 '버즈'를 볼 수 있고, 트랜스포머나 우주형제 같은 영화에서는 올드린 본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쓴 SF 소설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순간의 1등이 아니라, 평생의 2등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올드린이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1등만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사람들은 1등이라는 권위에만 매달리고 집착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다툼도 잦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2등이 1등을 질투하고, 헐뜯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하면 아폴로 11호의 임무 수행 사진은 오직 올드린의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올드린이 암스트롱을 질투해 고의로 사진을 찍어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올드린은 결코 고의적으로 암스트롱의 사진을 찍어주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시 임무에 따른 역할 분담으로 사령관인 암스트롱이 사진을 전담하여 찍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세상이 기억하는 1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기억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과정과 결과를 얻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누구든 자기 일에, 자신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를 인정해 주고 우러러 보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확신합니다. 1등은 기록을 남기지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는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을 남깁니다. 1등에게는 환호를 보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올 여름, 우리 태극전사들이 피파랭킹 1위의 전차군단을 꺾었던 그날처럼. AF





## 공군 IN Fitness

#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몇 년 전 에볼라와 메르스 등 치사율이 높은 각종 바이러스가 한국에도 출몰했다. 의학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여 기대 수명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바이러스는 진화하고 질병도 다양해지고 있다. 질병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기에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 문제다. 무더위에 지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살펴보자.

### 1. 나 자신을 알자

우선 면역관리의 첫 단계는 내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나의 생활 방식은 어떤지,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몸이 피곤하고 부담스러운지 파악하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도록 한다. 화와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에 해로운 뿐 아니라, 면역 시스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판단하고, 그 상황을 최대한 줄이거나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점검 후 개선할 점이 발견된다면,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보자.

### 2.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자

바이러스 감염을 막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세균과 바이러스로 전염되는 질병들은 주로 호흡과 접촉을 통해 전이된다.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기침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는 꼭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린다. 만약 불시에 재채기가 나오는데 휴지가 없다면, 옷소매로 가려서 허공에 재채기하지 않도록 한다. 대부분의 코로나바이러스는 재채기할 때 튀어나오는 분비물에 의해 전염된다.

### 3.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키자

우리의 모든 생활 습관은 건강과 면역에 직결된다. 그중 가장 기본은 바로 잠이다. 충분한 잠을 통해 지친 몸을 치유하고 기억을 정리해야 한다. 수면 시간 동안 뇌는 기억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알아서 정리한다.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나면, 끓어오르던 마음도 잔잔해질 수 있다. 이유

없이 아프던 머리도 괜찮아진다. 건강한 잠은 맛있는 밥만큼이나 보약이다. 만약 잠을 충분히 청하지 못한다면, 피로감이 누적되고 중요한 순간 내가 원하는 컨디션에 이르지 못한다. 또한 면역력도 약해져서 몸이 쉽게 아플 수 있다.

### 4. 자연과 친해지자

여름철, 냉방 시설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우리의 면역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평소 예민하고 가시를 세우거나 본인도 모르게 욱하는 성격이 있다면, 하루 10~20분 햇볕을 쬐고 맨땅을 손으로 짚어보자. 시간을 내어 숲속을 거닐거나, 명상하는 것도 좋다. 이른 아침 출근해서 어두울 때 퇴근하며 실내에 오래 머물고 햇빛을 보지 못하면 머리가 멍해지고, 감정이 불안정해진다. 반면 일광욕을 하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 균형을 이루어 감정의 기복이 완화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또한 내 몸의 면역 체계도 깨어난다. 자연이 주는 선물을 마음껏 누리자.

### 5. 우리 몸의 오감을 사용하자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으며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내 몸의 감각을 자극해보자. 몸을 자주 움직여 근육을 자극하고, 평소 근력을 관리해놓는다면 면역력 관리에도 좋다. 매일 간단한 체조나 샤워 등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활동도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 건강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과 원만히 지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좋아질 수 있다. AF

### 참고 자료

〈상위 5%로 가는 생물교실3〉, 2008. 7. 10. 스킨라(위즈덤하우스)



2018  
09  
4 8 3

POST CARD

우편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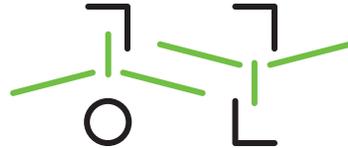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 \_\_\_\_\_ 연락처 : \_\_\_\_\_

도로명 주소 : \_\_\_\_\_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3 2 8 0 0



백일장 일흔 번째 주제

축제

월간 「공군」의 구독을 희망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 글, 그림, 출연

인트라넷(E-mail) : seawhale98@af.mil

인 터 넷(E-mail) : afzine@korea.kr

전화번호 : 042-552-6943

독자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월간 <공군>은 ○○이다.

---

월간 <공군> 9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9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18  
09  
4 8 3

## 월간 「공군」 9월호

잘 읽고 정답은  
상단 엽서에 적어주세요~



마감일 : 9월 30일까지

1.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비행단을 부르는 말로서, 올해 9월 15비가 처음 지정 되는 '이것'은?

- ① 블루 에어베이스
- ② 옐로 에어베이스
- ③ 그린 에어베이스

2. 다음 중 로드 마스터의 주요 임무가 아닌 것은?

- ① 인원공수
- ② 폭격유도
- ③ 화물투하

7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

정답 : 1. ① Foreign Object 2. ① 하계약기상집중감시기간

당첨자 : 경기도 고양시 김우진 / 서울시 성북구 김예솔 / 서울시 구로구 이춘성 / 울산시 중구 정혜영



보내주신 독자엽서 중  
매월 추첨을 통해 당첨되는 분께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POST CARD

# 공군과 함께하는 2018 사천 에어쇼

## Sacheon Air Show with ROKAF



2018. 10. 25(목)~28(일) / 사천비행장

